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4 SPRING 03+04+05

**기획**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젠더렌즈로 톺아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정책

**지역과 함께**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한다,  
드라마에서 흡소핑, 웹툰까지!

**문화가 산책**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031.455.2700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양산 055.367.1144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여수 061.654.2161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울산 052.247.352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원주 033.742.6090	(사)청주 043.265.3700	



www.ywca.or.kr



# 팔레스타인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팔레스타인에 공습이 시작된 직후 한국YWCA는 팔레스타인YWCA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팔레스타인 활동가와 민간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국경 앞에서 쌓여만 가는 긴급 지원 물자를 보내기보다 팔레스타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함께 씨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올리브 재배를 방해하였고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올리브나무에는 힘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는 힘, 스스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힘, 지친 이들의 생명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평화의 상징입니다.

2024년 평화의 소망을 가득 담아

올리브나무를 심어 주세요!

본 모금은 팔레스타인YWCA에 전달되어 올리브나무를 심는 데 사용됩니다.



# CONTENTS

Vol.589

2024 SPRING 03+04+05

www.ywca.or.kr

##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4년 6월~8월 주요일정

6월 3일	6월 월례아침기도회
6월 5일	Y-Peace Forum 1차
6월 8일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6월 12일-13일	제3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현장 워크숍
7월 1일	7월 월례아침기도회
7월 17일	Y-Peace Forum 2차
7월 27일	전국평화공동 행동의 날(한반도평화행동집회)
8월 5일-6일	2024 Y-틴 전국회원대회
8월 16일	제4차 탈핵기후생명 온라인 전국회의
8월 20일-22일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8월	YWCA 탈핵기후생명 청년포럼

제60권 제2호 통권 589호  
2024년 5월 24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AM10 DESIGN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COVER STORY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3.16 에너지전환 대회에 참석한 9개 지역 회원YWCA와 연합회 활동가들, 그리고 전남 독일 지구의 벗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메르그너 회장과 바이거 박사. 후쿠시마의 재앙을 기억하며 이땅에 탈핵 사회를 염원했다.



## 02

### 이달의 생각

'함께의 힘'  
김은경

## 03

### 말씀 묵상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송진순

## 04

### 기획 |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1

기후위기 대응과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김은희

## 08

### 기획 |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2

젠더렌즈로 토티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정책  
남궁혜경

## 11

### 탈핵기후생명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평가  
이현석

## 14

### 평화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조성렬

## 17

### 소비자운동

인공지능이 가진 예측불가능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안정희

## 20

### 이슈 포커스

22대 국회, 여성위원의 역할  
60명의 여성의원 중 10%라도 젠더문제에 관심을  
권수현

## 24

### 중:인

제6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여성 빈곤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  
이한빛

## 28

### 탈핵, 현장 속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3.16에너지전환대회  
시민은 안전한 탈핵사회 원한다  
편집실

## 32

### 지역과 함께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한다, 드라마에서 흡소핑, 웹툰까지!  
소연

## 36

### 지역 탈핵 현장을 찾아

4.20 삼척 집중행동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석탄발전소?  
유에스터

## 40

### 교육 현장을 찾아

2024 YWCA 전국회장단 연수  
여성과 약자,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는 사회를 향하여  
정서연

## 44

### 청년토크

우리가 나누는 '기후정의'  
대학 청년Y

## 46

###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드라마 <눈물의 여왕>  
김선영

## 48

### 문화가 산책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  
이윤숙

## 50

### 연합회 소식

## 57


### 회원YWCA 소식

# ‘함께’의 힘 solidarity matters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102년을 맞이한 한국YWCA의 지속성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함께하는 조직문화에 있다. 앞서 간 선배님들의 헌신에 기초한 세대 간 어울림, 자원지도력과 실무지도력 간의 존중과 신뢰, 연합회와 회원Y 간의 협업 등이 YWCA 공동체를 작동시켜온 Y리더십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목표로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회원운동, 국제운동체로 역할을 해왔다. 변화된 시대상황 속에서, 심지어 과거와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초연결사회에서조차 Y를 움직이는 ‘함께’의 힘은 2023년, 49개의 회원YWCA가 독립 법인으로 재탄생한 이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간다. 회원 수의 감소, 불안정한 재정 구조, 운동성 결여, 활동가 부족 및 리더십 약화 등 법인 전환 이후 맞닥뜨린 도전 과제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으면서 소통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힘을 얻는 열린 체계 open system 로의 진입이 바로 그것이다. 열린 체계는 위계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벗어나 수평적이고 자연적인 체계를 추구하고, 통제가 아닌 자율을, 개인의 노력을 넘어 연결과 연계를, 프로그램 기획이 아닌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몇몇의 전문가가 아닌 집합 지성으로 제한적인 성과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


하는 조직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돌아보자. 차별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06년 시작된 저출생 정책은 20년 가까이 되풀이되는 실책으로 합계출산율 0.6%를 내다보고 있고, 범죄 발생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20%로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 위기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후대응정책들’(gender-blind climate solutions)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전례 없는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난제들을 불러오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의지해오던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열린 체계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성평등 관점, 탈핵·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재난대응 그리고 정책 ...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든 운동 과제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들을 받아 안고 감히 해보리라 다짐한 한 가지 이유는 기독교여성주의운동단체인 YWCA활동가로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함께’ 헤쳐 나가길 소망한다. 

#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누가복음 5:4-6



2024년도를 전망했던 많은 책 중에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송길영의 <시대예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마인드 마이너: 시대의 마음을 깨는 자라고 칭하며, 이 시대를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 진단합니다. ‘지능화’와 ‘고령화’입니다. 인간의 생애주기가 확대되고,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이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소위 ‘정상’과 ‘보편’으로 여겨지는 관계들과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점차 약화되고, 가족과 조직의 테두리는 무너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나, 부모, 자녀가 나의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신뢰와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해개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전망합니다. 이 책에서 행복한 개인의 삶에 대해 질문했다면, YWCA는 이제 해개인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의 정신으로, 시대에 부응하되 시대를 넘어서는 생명을 위한 삶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사람에게 과거는 또 다른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YWCA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누구에게 다가갔습니까? 성평등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운동, 청년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이 YWCA 활동의 장이었습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를 마주하며, 시대의 낮은 소리를 듣고, 섬세하고 창의적이며 연대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Y의 미래는 생명을 향한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가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실패하고 지친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함께 생명을 살려보자는 가슴 뜨거운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라운 만선의 기적과 갑작스러운 제안에 예수도 거부하고 자신의 죄인 됨을 역설하지만 이내 인생을 건 결단을 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는 예수의 말씀대로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파트너, 신망받는 제자가 됩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어둡고 흔들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100년을 쉬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과 여성의 시선과 시민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상 한가운데, 사회 깊은 데로 내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부 한 번 쓴 그물은 건져올려 반드시 깨끗하게 털고 낚는 과정을 거쳐야 다음 조업에서 온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가슴 뛰는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세대와 함께, 인간을 넘어 창조세계와 함께, 부정의를 넘어 정의, 평화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들입니다. 



작하지만은 않다.

영화 《개미와 배짱이》<sup>3</sup>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나레이터 아니타 치타야 Anita Chitaya 는 기후위기 최일선 국가 말라위 Malawi<sup>4</sup> Bwabwa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 여성이다. 납치 결혼을 당했지만 농부이자 어머니로서 살면서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말라위는 한 해 동안 비가 3번밖에 내리지 않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아니타는 조금이라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리용 화덕을 만드는 변화의 주체다.



영화 개미와 배짱이 출처 : www.antsandgrasshopper.org

어서 여성들을 이해당사자(43%), 피해자(34%), 수혜자(27%), 변화의 주체(18%)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 여성은 '희망'인가

여성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인식aware ness'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거나 타인의 기후변화 관련 경험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5</sup> 선행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후위기를 더 걱정했고,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슬픔, 두려움, 분노, 무력감 등)을 더 경험

하기도 한다(Stone & Spencer 2022). 성과 연령(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은 정서적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worry'나 '희망hope'은 환경친화적 행동 등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Baker et al. 2020; Ojala & Bengtsson 2019).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가 언제나 일관된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는 달랐다.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기후불안 수준, 자기효능감, 환경친화적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기후불안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친화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채수미 외, 2024).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기후불안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이 생태친화적 관점 또는 가치관으로 인해 남성보다 기후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채수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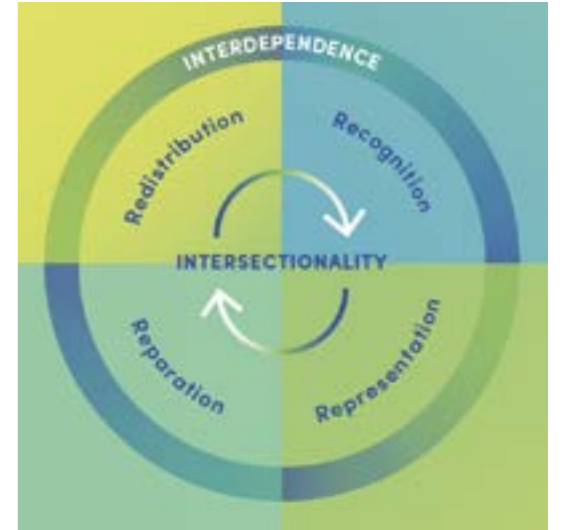
(2024)의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후불안이 더 높게 나와서 일관된 증거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스트 인류학자 김현미(2023)는 생태적 슬픔이라는 정동은 수치와 희망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기서의 희망은 무언가 잘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 혹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 일에 투자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희망은 성공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고 좋은 것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능력'을 뜻한다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계속해서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생산적이라 규정한 것들에 내재한 파괴성을 드러내고, 기존의 생산 개념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비판함으로써 자연을 착취할 자원이 아닌 연결된 존재로 보고, 상호돌봄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론이자 실천이 에코페미니즘이다(김은희 2023). 또한 발 플럼우드드는 이론론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론론을 극복하기 위해 지배자 모델에 동화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연속된 것으로서 인간 그리고 자연 개념의 재검토를 제안한다(Plumwood 1993).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성, 농민, 지역공동체들의 범아프리카 동맹인 WoMin은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 페미니즘적 탈식민지 녹색 경제를 향한 전환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지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미래는 에코페미니스트라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sup> 주류 페미니즘이 에코페미니즘과 분리된 후 대체로 자연이나 동물 생명의 파괴를 경시해 왔지만, 다시 페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은 종합적 정의의 관점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노우에 타이치 2024).

### 기후위기 대응의 젠더 통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구 만들기

기후정의에서 강조되는 '생태 부채 Ecological debt'(Eva Quistorp,



【그림】페미니스트 기후정의 프레임워크 출처 : Laura Turquet, Constanza Tabbush, Silke Staab, Loui Williams and Brianna Howel (2023)

1985)는 에코페미니스트로부터 제안된 개념이다. 살레(Salleh, 2009년)는 자본주의적 과정이 어떻게 북반구에서 자연과 사람을 동시에 착취하고 '착근된 생태 부채 Embodied debt'를 유지하는가를 설명하기도 한다. 북반구 개발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생태 부채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며, 최근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논의나 페미니스트 액션 넥서스 Feminist Action Nexus 활동 등에서 글로벌 경제정의 부채정의, 페미니스트 기후정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 UN Women이 #COP28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인정 Recognition, 대표 Representation의 3차원 정의(프레이저, 2008)와 함께 배상 Reparation을 강조하고, 교차성과 상호의존의 관계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프레임워크 #FeministClimateJustice를 제안하고 있다(Laura Turquet, Constanza Tabbush, Silke Staab, Loui Williams and Brianna Howel, 2023). 

+++

3 2021년 라즈 파텔과 잭 파이퍼가 감독을 맡은 영화 《개미와 배짱이(The Ants and the Grasshopper)》는 2021년 발표됐다. 국내에서도 2022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산여성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2023년 아프리카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 대구여성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 감독 라즈 파텔(Raj Patel)은 미국 텍사스대 교수로 『식량전쟁』 『먹거리 반란』 『경제학의 배신』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등이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으며, 2023년에는 <경향포럼>에 참석해 "저렴하게 취급된 요소 중 핵심은 돌봄"이라며 "돌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우리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3.06.13. 참조).

4 국가별 기후위기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구조위원회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는 기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피해를 입은 국가의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이니셔티브(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의 기후분야 ND-GAIN Country Index 순위에서 말라위는 376으로 116번째다.

5 IPCC(2022) 제6차 보고서에서는 인식을 일종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vicarious exposure)로 설명한다.

+++

6 <https://womin.africa/the-future-must-be-ecofeminist>

# 젠더렌즈로 톺아본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

고양YWCA는 2021년~2023년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 중 재난대비 역량강화정책,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별대표성 및 세대별 대표성, 관련 조례모니터링, 기후위기대응사업 성인지예산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해 있지만 그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에서 여성과 아동은 남성에 비해 더 큰 사망률을 보였고,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 중 80%가 여성이라는 통계도 보고된 바 있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때 여성들은 생계 권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각종 젠더폭력에도 쉽게 노출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기후위기대응운동, 동물권, 채식운동, 녹색소비, 제로웨이스트운동 등 환경 관련 이슈에서 언제나 현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삶의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한 정책을 설계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여성의 몫은 적거나 없었다. 여성의 경험과 요구가 기후위기대응정책 안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젠더관점이 없는 정책이 재난의 현장에서 펼쳐지면 비가시화되어 있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고양YWCA는 2021년~2023년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 중 재난대비 역량강화정책,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별대표성 및

세대별 대표성, 관련 조례모니터링, 기후위기대응사업 성인지예산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먼저, 고양시 재난대비 안전정책을 살펴봤던 이유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폭염위험평가에서 고양시는 폭염보다 홍수위험도가 훨씬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수위험지도에서 하천 제방의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 범위가 고양시 상당수의 지역에서 0.5m 이하부터 크기는 5m 이상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시대에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여성의 피해가 크기에 여성의 재난안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의 재난대응교육은 남성에 비해 적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여성의 돌봄 관련 사회적 역할,

### 남녀 상이한 이해

고양YWCA가 고양시민 안전의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재난재해 안전교육 수혜경험 관련 질문에서 여성은 38.2%,

남성은 23%가 수혜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능력이 없다'는 응답에 여성의 47.1%, 남성은 21.5%가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재난재해 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이유를 남녀 모두 '교육 기회의 부재'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 이유가 현저히 달랐다. 남성은 '여성이 근력이 약해서' 라고 생각했고, 여성들은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이 더 큰 피해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재난대비에서 여성의 돌봄 관련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 시민안전 체험관의 교육 수혜율, 연령이 주요 변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제적인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교육수혜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전체 교육생의 성별격차는 크게 없었지만 교육수혜자의 81%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19세 이상의 성인여성들이 안전교육을 받으려 오는 비율은 해당 연령층의 인구수에 비해 매우 적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안전교육이 학교나 기업에서 의무화되면서 소속이 있는 경우는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비취업중년 이상 여성의 경우는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런 실태를 기반으로 고양YWCA는 교육기회가 없거나 적은 비

취업중년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확대, 재난 취약자 및 이들을 동반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요령 메뉴얼을 별도로 제작하고 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성별분리 통계생산을 제안하였다.

## 다양한 현장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는 여전히 배제

두 번째로는 기후환경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조례 43개에서 차별적 용어의 유무,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수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의 유무, 위원회 개최시 연회의 횟수를 표기하고 있는지 유무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여성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세대별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한국사회 곳곳 기후위기대응 관련 토론회에서도 성비비율을 보면 여성패널이 아예 없거나 소수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세대별 대표성을 동시에 살펴봤던 이유는 성별균형뿐 아니라 세대별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로 풍요와 이익을 누린 기성세대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 피해를 온전히 부담할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 역시 크다. 청년, 청소년들이 단지 교육과 캠페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기후위기대응의 주체자로 자리매김할 수



#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평가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세대별 균형을 살펴보게 되었다.

## 기후환경 분야 14개 위원회 성별균형 모니터링 진행

기후환경 분야 14개 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았을 때 14개 조례 모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7개의 위원회만 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7개 위원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에너지관련 위원회는 전문가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성별균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실제 이 위원회는 성별균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성별균형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제안하였다.

어떤 연령층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위원들의 연령은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연령층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체계적인 기후환경교육을 요구했던 청소년들이 기후환경 교육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 기후환경교육이 자신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동등한 주체자가 아닌 교육받을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각종 기후정책안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별대표성을 넘어 세대별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제안하였다.


## 조례에 인권적 감수성과 젠더감수성 반영

또한 조례가 법적인 용어라 성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례를 구성하는 언어들에 현재의 인권적 감수성과 젠더감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기술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용어들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해 수정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고양시 여성농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기후위기시대의 농업은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우리 삶의 식량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모니터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고양시 시의원, 담당부서공무원, 고양시민들과 함께 결과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이 보고서가 캐비넷 보관용으로만 전시되지 않도록 정책반영에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실제 보고회에 왔던 시의원들이 시의회 발언에서 모니터링결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로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지자체의 기후정책을 젠더관점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자체가 성별에 따른 기후위기에영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의도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젠더관점의 정책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이다. 



## 탄소중심(?) 기후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기 전이었던 2021년 7월, 작은 헤프닝이 있었다. 대전에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이라는 찬핵단체 행사에서 주최 측이 마련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그 마스크에 '탄소중심 기후대응'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탄소중립'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잘못 쓴 것이다. 정치인들은 행사에 참여하여 피켓이나 마스크 등을 쓸 때, 보좌진이나 정치인 본인이 문구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례이다.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확인 과정은 없었고, 이날의 헤프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책 감수성'이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일은 2022년 2월 대선 TV 토론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라고 물었다. 윤석열 후보는 잘 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나서 결국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뜻하는 RE100 대응 방향을 묻는 말이었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은 낮은 표현이었다.

이들 사건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해 정도를 보여 준다. 선거 공약을 통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밝혔지만, 그에게 탈원전 정책은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언급될 뿐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아니다. '탈 탈원전 정책'이란 어색한 용어가 현 정부에

서 계속 나오는 것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탈핵' 혹은 '탈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 표명 정도 수준에만 다뤄진다.

## 차기 정부에서 미뤄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이란 측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수정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에 따르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후퇴)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2023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2027년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연평균 1.99%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연평균 9.29%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30년의 경우, 이전 연도보다 17.54%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은 '차기 정부에게 미뤄둔 숙제' 같은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와 석탄 화력 부문 배출량 감축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부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통해 전력 부문 감축을 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는 미온적이다. 올해 가동을 시작할 삼척 석탄화력발전

초처럼 새로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있을뿐더러,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기간도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가스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수소 혼소를 통해 가동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암모니아와 수소는 그 자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지만, 암모니아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하는 그레이 암모니아나 그레이 수소의 경우,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핵발전소 7기 용량 전력,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싼 전기요금, 절전이나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미비,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이외에도 최근에는 컴퓨터 서버가 모인 데이터 센터(DC)나 대규모 반도체 단지 등도 주요 전력 소비자 중 하나이다. 정보화 사회가 확산되고 최근 인공지능(AI)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0년 112개 수준이던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는 2020년 167개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전국에 205개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 걸로 추정된다. 이들 데이터 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데, 현재 전국 데이터 센터의 60.1%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특성상 이들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변전 설비도 증설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이다. 총 21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삼성과 SK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향후 20년간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규모가 가장 큰 핵발전소 7기 수준이다. 이미 수도권 전력수요가 밀집해 있어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해안도 아닌 내륙에 이렇게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최근 애플이나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통해 부품을 납품받는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100%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용인에 LNG 화력발전소를 6기 건설하고, 강원도의 석탄화력발전소나 울진 핵발전소 등의 전력을 공급한 이후 2030년대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용인으로 송전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추진한다는 3단계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LNG 발전소이든, 동해안과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이든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어 이 계획이 실제 확정될지, 확정되더라도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1970-80년대 정부가 일률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을 공급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과거보다 환경규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넓어졌고, 국제사회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압력까지 높아졌다. 처음 반도체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부터 전력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안배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한전 적자 누적과 민영화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이후 상당한 시



간이 지났음에도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전기요금 동결로 공기업 한전이 약 50조 원에 이르는 큰 적자를 보았다는 사실이다. 한전 누적 부채는 200조 원을 돌파했고, 작년 이자 비용으로만 44조 원을 납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낮았던 것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전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나 개인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급격한 부담에 대해 한전이 완충시대 역할을 한 것은 긍정적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의 부채가 사라지지 않는다. 액수가 너무 크고, 실제 에너지를 소비한 '요금'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적절치 못하다. 결국 이 한전 부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저소득층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기후정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채 시간이 감에 따라 한전 사장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산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송·변전망도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맞춰 늘려가야 하는 시점

이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재무 상태는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이미 만들어진 부채를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의 송·변전 사업 확대' 카드를 들고나왔다.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송·변전 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방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력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전력시장 개방이나 송전망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기요금 문제로 시작된 한전 적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 11차 전력계획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쟁점

앞서 언급한 원전 최장국 건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소 증설, 송전망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은 올해 연말까지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에 대한 계획을 모두 담고 있는 핵심적인 행정계획이지만, 충분히 자료가 공개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이번엔 확정될 11차 전력 계획도 작년 연말에 발표된다고 했던 초안이 5월 중순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존 전력망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고, 새로 건설되는 산업단지에는 어떻게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복잡하다고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맡긴다면,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는 무시되며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어떻게 전력 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목소리를 기대해 본다.

#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한때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의미하는 ‘역사의 종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정세는 오히려 전쟁의 시대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국제분쟁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국제연합UN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에 개입되는 바람에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정세를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전’으로 파악, 미국은 ‘다극질서’ 만들어가

미국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전’으로 파악하여 탈동조화De-coupling 대신에 탈리스크화De-risking에 주력중이다. 중국·러시아도 신냉전이라는 정세인식을 배제하면서도 미국의 유일패권을 거부하며 자국에 유리한 ‘다극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전략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오히려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기구들이 득세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범위와 강도에서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주요선진국정상회의G-7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탈러화 결제를

확대하고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를 창설해 SWIFT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또한 2024년 1월을 기해 BRICS plus로 확대해 기존 회원국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했다.

미국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네트워크IPEF를 창설한 데 이어, 일대일로OBOR: one belt one road의 6개 경제회랑 구축에 맞서 2023년 9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출범시켰다. 이에 맞춰 2023년 10월 유럽공동체도 제3세계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 게이트 구상’에 착수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선진 4개국을 CHIP4로 묶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막는 한편,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첨단 반도체기업



【그림 1】 RCEP와 IPEF 참가국 비교

의 미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1 참조)

## 중국의 도련전략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안보 면에서도 미·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전략으로 도련島鏈, Island chain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련전략’이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거쳐 말레이시아를 잇는 제1도련선은 2010년에, 일본-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은 2020년에 사실상 완성되었다. 실제로 중국이 동풍-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 기지인 괌도를 사거리에 넣음에 따라, 2020년 미국은 괌도에 있던 전략 자산을 미 본토로 철수한 뒤 수시 배치로 전환했다.

미국은 중국의 도련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이 지역에 유명함대, 6세대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의 전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 4개 군사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이곳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동맹의 재래식 무기체계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일본과는 첨단군사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합의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 나토의 동진에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NATO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9년 나토와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TCP을 채택한 데 이어 2022년 11개 분야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개별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판 나토와 같이 지역을 묶는 단일한 공동방위기구를 만들기보다 통합억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소다자 안보기구를 만들어 연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지역을 하나의 커다란

집단방위기구로 묶는 ‘나토식 안보’는 아시아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근간으로 역내 국가들을 서로 교차하는 여러 개의 소다자 협의체로 묶는 것이 미국의 안보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는 이러한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해 ‘격자형 전략구조lattice-like strategic architecture’라고 불렀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도 이 개념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림2 참조)

근년 들어 미국은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을 묶는 소다자안보기구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영국·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동맹 외에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가하는 쿼드QUAD, 그리고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협의체, 금년 4월 미국·일본·필리핀 3국 안보협의체 협의의 등 소다자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 중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도전을 저지하려고 한다.

중국의 굴기와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 공동논문 ‘세계 지배로 가는 중국의 두 가지 길’,(2020.5)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중국의 패권전략을 해양진출로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전략과 중국이 세계에서 지역



【그림 2】 중국의 도련전략과 미국의 대응

# 인공지능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일주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이 가입했고,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챗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입자를 모은 서비스가 되었다. 챗GPT 출시 이후 AI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생성형 AI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가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과 편집, 음성, 음악 생성과 합성, 예술 창작의 영역인 그림, 소설, 시 등도 생성할 수 있으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서 큰 효율과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024년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에서도 세계소비자권리의날World Consumer Rights Day 주제를 '소비자를 위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로 정하여 AI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도 지난해부터 AI와 관련된 주제로 계속 논의를 진행시키며 소비자 입장에서 AI에 대해 재조명하며, 생성형 AI와 관련한 동향,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 및 소비자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AI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

### …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AI가 인터넷상의 성별, 인종, 종교, 계층 등에 관한 편향된 정보를 학습할 경우 데이터·알고리즘은 편견을 담은 데이터로 개인 간 가격, 상품, 서비스 등 편향과 차별을 확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테이'는 인종, 성차별 발언으로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었고, 2018년 범죄예측프로그램 'COMPASS'가 흑인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예측하였다. 2018년 아마존의 AI채용 시스템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편향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9년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협력해 출시한 신용카드사에서 대출 시 남성의 신용을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 … 개인정보침해

생성형 AI는 사람 상호간의 의사소통처럼 이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챗GPT가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2021년 스캐터랩의 국내 챗봇 '이루다'는 이루다의 학습, 운영에 필요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하였다. 2022년 영국 정보위원회는 안면인식 시스템 클리어 뷰가 200억 개가 넘는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안면인식 기술에 활용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얼굴 안면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아 역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을 포위하는 전략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산의 제한으로 두 가지 전략에 대해 동시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은 지역 차원과 세계 차원에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해 온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자산이 제한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체의 힘만으로 동맹국의 자산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미국에게 대서양 안보의 핵심파트너로 영국이 있다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파트너로는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 비록 파이브아이즈Five Eyes나 오키스AUKUS와 같은 앵글로색슨 동맹에는 정식 멤버로 끼지 못하지만, 인도-태평양의 미·일·호·인QUAD이나 한·미·일, 미·일·필 3·4자 안보협의체에 공통적으로 미·일동맹이 자리하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한국군, 미일에 중속될 위험

한·미·일 3자 안보협의체만 해도 위상의 차이는 분명하다.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는 병립형 군 지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가 가능하다. 이해 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통제는 제한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연합작전을 실시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은 미일에 군사적으로 중속될 위험성이 있다. 전범국 일본은 전후 군사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외교적으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왔다. 일본은 2015년 안보법제 제정을 통해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 2022년 3대 안보문서를 발표해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금년 4월 미·일 정상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통합작전능력 제고, 군사장비 개발·운영 협력, 오키스 필러2참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미 확대역제 강화마

련 등 '새로운 전략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편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강제동원피해자 배상과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 조치를 취했다.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지만, 일본발 지정학 리스크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군사대국이 된 일본은 결국 그 충구를 우리에게 겨누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이 미·일 주도의 지역군사협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경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기에 이루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중·러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지만, 한국이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외교적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선 안 된다.

## 남북관계 정상화해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해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분단국가이자 중견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강대국 간의 진영논리에 휘말려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위상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분단극복을 통한 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대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24 세계소비자권리날 캠페인

### →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의 보상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AI모델의 수익화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출시되고, 엔터테인먼트 등 업계의 AI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AI가 작가의 문체 등을 배워 초안 작성에 활용되는 등 저작권 침해와 표절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창작자 처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잠재적 일자리를 위협한다. 2023년 5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작가조합, 배우, 방송인조합이 AI학습에 자신들의 작품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미국 캐나다 2,000여 신문을 대표하는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도 AI가 방대한 뉴스를 학습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체계, 법적관계 등을 논의 중이다. AI의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자 사용 없이 학습할 수 있는지의 문제, AI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AI관련 거부권, 설명요구권, 신용정보에서 자동화된 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추가되었으며, 채용분야에 AI를 활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 중이다.

### → 환각(hallucination) 이슈와 허위정보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을 '환각'이라고 한다. 챗GPT는 온라인 데이터에서 언어의 통계적 패턴만을 학습해 내용의 정확성과

는 별개로 문법적으로만 완전한 문장을 구현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구성된 판단이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 외에 조작된 허위 정보 가짜뉴스로 인해 소비자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딥페이크'라고 한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진짜같은 이미지, 목소리, 영상 등의 손쉬운 제작이 가능하고 역할극 등의 방식을 통해 금지된 정보에 접근도 가능하다.

톰 행크스의 동의 없이 AI로 만든 치과보험 광고, 유명 연예인의 동의 없이 AI로 만든 체중 감량 광고 등 사기성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항복영상, 선거를 앞두고 상대편 후보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등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AI로 아동, 여성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초상권이 노출되는 음란물 피해, AI로 악성코드 생성,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 텍스트 생성 등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2023년 AI를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또 중국에서는 소개팅 앱에서 이성을 소개받는 댓가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소개받은 여성이 AI가 상인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AI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시스템 오작동, 정보 유출,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문제 등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달할수록 이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소비자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 EU 인공지능법과 기타 국가들의 동향

전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철저하게 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유럽 연합(EU)이다. EU는 2023년 12월 8일 인공지능법을 마련했다. EU의 AI법은 위험기반(Risk-based) 접근을 하고 있는데 AI가 가져오는 위험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고 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부과되고, EU

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인공지능,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AI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 우려로 금지되는 AI활동을 규정해 놓았는데 ▶ 특정 집단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 녹화된 영상을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EU '디지털 서비스법'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와 대규모 검색엔진에 대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방식이 불법 콘텐츠 유포, 기본권침해, 시민담론, 선거과정, 성평등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여 그 위험을 완화하도록 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 정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에 의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알고리즘 활용 타겟팅 광고는 파라미터(매개변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안) 제조물의 정의에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된 파일과 소프트웨어'를 추가했으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증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사업자의 자료 공개 의무 도입', 인공지능법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조자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을 통한 입증 책임의 완화' 조항을 넣었다. 미국은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미국의 안보나 경제, 보건,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개발자는 테스트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먼저 공유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6월 「AI 및 데이터 법안」 발의했는데 AI책임자는 시스템의 고 위험 여부를 평가하고 피해의 위험성을 식별, 평가하여 감경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법제대응과 소비자보호의 과제

AI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여 소

비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과제는 우선 EU의 법안마련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현행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법 체계에서는 생성형AI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AI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표시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AI를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채용거부권이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EU처럼 제조물책임법에 제조물범위에 AI를 포함시키는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AI산업육성법안을 보면 고위험 영역(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AI를 제외하고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 육성에 치우쳐있어 AI 위험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AI 규제를 위한 내용들이 거대 담론을 다루며 늦어지고 있으므로 우선은 현실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법안 마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소비자의 윤리와 책임성이다. 생성형 AI를 소비자가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만 이용하고, 진실성이 조작된 사진, 영상 등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등 바람직한 AI 이용 문화 형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과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로 하는 사회전반의 교육체계 개편과 시스템 구축, 정부, 기업, 단체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AI 윤리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60명의 여성의원 중 10%라도 젠더문제에 관심을

이번 총선의 여성대표성 결과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지역구 의원(36명)이 비례대표 의원(24명)보다 12명이나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여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천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비율이 약 14%(전체 693 중 97명)로 21대 총선 당시 18.98%보다 4%포인트 이상 줄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의원 수 또한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은 21대 19%에서 22대 20%로 1%포인트 증가했다(표 1 참조). 법적 성별할당제<sup>1</sup> legislative gender quota가 실질적으로 적용돼 여성의원 비율이 이전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던 17대 총선(2004년) 이후로 여성의원 수와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으나 그 폭은 2.0%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가 정당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아닌, 여성 개인의 개별적인 노력, 즉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정당들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

【표 1】 22대 총선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현황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수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수	여성 비율	
후보자	693	97	13.99	245	133	54.29	24.31
당선자	254	36	14.17	46	24	52.17	2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법적 성별할당제 제정 과정에서부터 요구해왔던, 2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구호이지만, 지역구 후보공천에 성별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유효하며, 이것이야말로 여성의원 비율 30%를 넘어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성은 없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발언은 난무**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소장은 <한겨레21>에 투고한 글에서 이번 22대 총선을 여성이 세 번 사라진 선거로 규정했다. “숫자가 줄고, 인물이 없어졌고, 정책이 실종됐다”(권김현영 2024). 여성대표성 확대를 바라고, 나를 대표해 줄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라면, 이 평가에 적극 공감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은 사라졌지만 여성에 대한 무지와 무시, 멸시는 난무했다는 것이다. 젠더관점에서 문제적인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고, 후보가 됐고, 일부는 당선까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전쟁이 임해 나라에 보답한다며 중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다.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복건우 2024)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고, 당선까지 됐다. 성차별과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여성과 남성 간 대립으로 프레임해 반페미니즘 백래시<sup>2</sup> anti-feminism backlash를 추동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경기 화성을)와 천하람 비례대표 후보 또한 모두 당선됐다. 천하람 당선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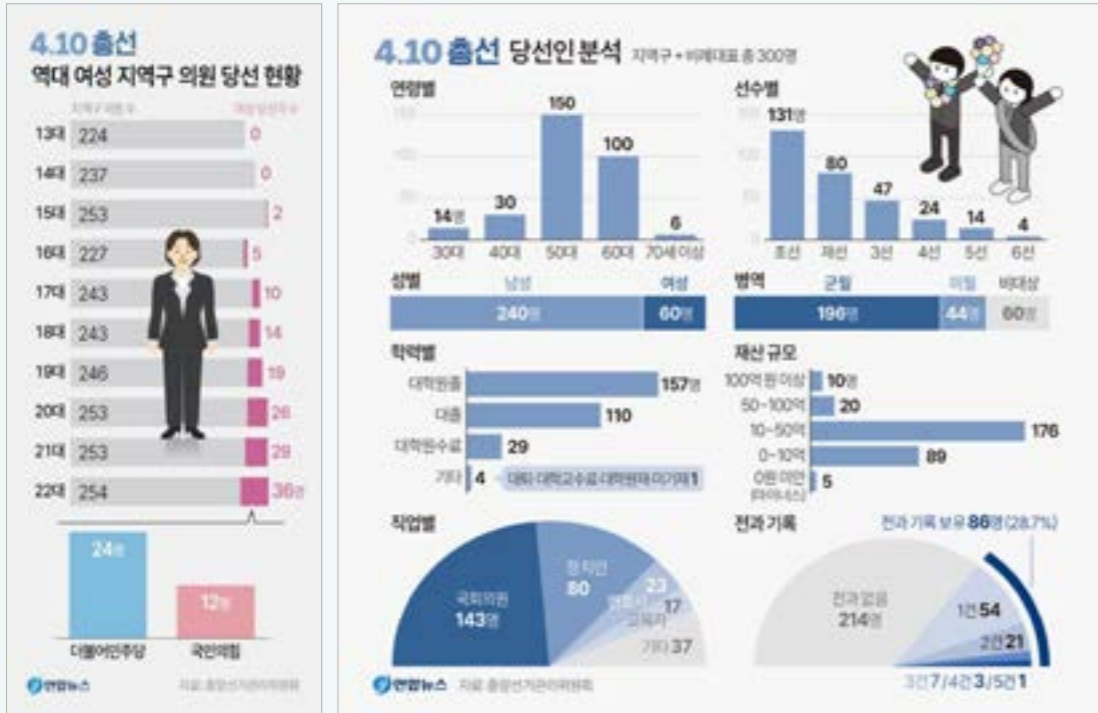
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생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해왔다.<sup>1</sup> 이러한 발언은 강간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며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강간이 발생하는 성착취적 구조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도 개혁신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을 철회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 총선 기간에도 동일한 논리를 반복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지냈던 장예찬 후보는 과거 페이스북 발언들(“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직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남자들은 룬(살롱) 두 번 갈 거 한 번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 줌 작작 사시오”) 등으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 취소를 당했는데 이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개혁신당의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하기로 했던 이기원 후보는 과거 위안부 소녀상을 “강간 대자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강희원 2024). 성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것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박세열·박정연 2024)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

<sup>1</sup> 총선 이후에 천하람 당선인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 안타깝게도 고령층이 주도하는 정치권만 이 간단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젠더갈등과 세대갈라치기 논리를 동원해 일본 AV(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영상물)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KXF: K-XF The Fashion) 개최를 적극 옹호했다(이슬기 2024).  
<sup>2</sup> 정봉주 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비무장지대(DMZ) 발목 지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그림 1】역대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현황과 22대 총선 당선인 분석  
자료 : 김토일(2024) & 김민지(2024)

전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공천을 신청했다.<sup>2</sup>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기보다 억울해하며 정치권 재진입을 노리는 사람들은 정분주 전 의원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 득시글거리는 곳이 한국 정치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젠더정치에 있어 중요하다.

**여성의원 경쟁력 확인, 여성의원 내 다양성 부족**

이번 총선의 여성대표성 결과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지역구 의원(36명)이 비례대표 의원(24명)보다 12명이나 많다는 것이다. 20대 총선(2016년)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여성의원인 비례대표 여성의원보다 1명 더 많았고, 이는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인 7명이나 더 늘었다(그림 1 참조). 이는 서

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남성 정치인들의 텃밭이었던 경상도(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포항: 북구, 경북: 경산시, 상주·문경시)와 전라도(광주: 북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대전(유성구, 대덕구) 등에 여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천됐기 때문이다. 텃밭이 있는 정당에서는 다른 정당 후보와의 외부 경쟁보다 같은 정당 후보와의 내부 경쟁이 더 어렵기 때문에 내부 경쟁에서 여성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상도와 전라도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20대 총선 당시 안철수와 국민의당)를 제외하고는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명패만 달고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남성 정치인이 능력과

경쟁력이 있어서 당선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지역을 그동안 남성 정치인들이 독점해왔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남성독점에 여성 정치인들이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여성대표성의 유의미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균열은 언제든 쉽게 봉합되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2대 총선 당선자의 연령과 경력을 간략히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56.3세로 21대 국회 54.9세보다 1.4세나 더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50명이고, 60대가 100명, 40대가 30명, 30대가 14명, 70대가 6명으로 50~60대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경력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140명, 정치인 66명, 변호사 19명, 교육자 8명으로 (전)현직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원만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60명의 여성의원 중 50대가 30명, 40대가 15명, 60대가 11명, 30대가 4명으로 여성의원도 중장년 여성이 다수이다. 경력 또한 국회의원 22명, 정당인 10명, 교육자 5명, 법조인 5명, 의료인 4명 등으로 정치인으로 살아온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여성대표성의 확대는 여성 비율 확대만이 아니라 다양성 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여성대표성의 인적 구성은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60명 중 10%의 여성의원이라도 크리티컬 액터가 되기를**

성인지 감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차별의 구조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와 당선인에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후보와 당선인 중에서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이 된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성별할당제가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

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며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인 성별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예림 2024). 또다시 성차별 구조의 문제는 사라졌고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다)’ 프레임만 만들어졌다.

개인이 뛰어나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의원은 이주영 당선인만은 아닐 것이다. 성별할당제가 (능력 있는)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보통의 여성시민들이 투쟁했고, 그럼에도 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어서 많은 여성 정치인과 젠더의제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의원과 페미니스트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 의원이 있을까. 모든 여성 의원이 페미니스트이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반페미니즘 백래시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크리티컬 액터(critical actor)’ 역할을 할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현재 우리 앞에는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젠더문제가 놓여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성평등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서 성평등한 성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권을 보장해 원하는 때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해 가사노동이 성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누구나 돌봄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대표조차 없다면 더 절망적인 것이다. 60명의 여성의원 중 10%의 여성의원만이라도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젠더문제 해결이 요원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여성 의원이 있다면, 여성 시민도 여성 의원의 손을 적극 잡기를 바란다.

# 여성 빈곤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매년 3월 중순에 2주간 진행되는 회의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속해 있는 특별위원회이다. 올해 진행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는 68차 회의로, 지난 3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빈곤 해결 및 젠더 관점에서 의 제도와 재정 강화를 통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성평등 달성'과 역량 강화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UN CSW68의 올해 주제는 여성의 빈곤 해결이었다.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UN NGO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는 매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단체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한국 상황 및 시민단체 활동 공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진행된 제6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이하 CSW68)에도 대표단을 꾸려 파견하였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공적 생활에서

의 여성의 완전한 참여, 2022년에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에서의 성평등 강화, 2023년에는 디지털시대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2024년 제6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의 주요 논의는 여성의 빈곤 해결이었다. 여성 빈곤 해결 문제는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의 가장 첫 번째 전략목표로, 이번 CSW68에서는 현재 전 세계 여성의 10.3%가 극빈층에 살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전 세계 여성의 약 8%가 하루 2.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CSW68, Agreed conclusion)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장관급 회의인 본회의(Official Meeting), 정부 부처가 기구에서 운영하는 사이드 이벤트(Side Event), 한국 YWCA 같은 비정부기구에서 운영하는 패러럴 이벤트(Parallel Event)로 구분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주로 장관들이 참여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 시행해온 정책과 성과를 보고하며, 향후 어떤 노력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사이드 이벤트는 각 국가 기관들이 주제와 관련하여 전개한 연구 업적과 정부와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러럴 이벤트에서는 비정부 기구들이 마찬가지로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상황과 활동을 공유한다.

## 2024 한국YWCA 대표단

한국YWCA는 올해 총 4명으로 대표단을 꾸려 UN 뉴욕 본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여하였다. 연합회에서는 김은경 전 성평등정책위원장(현 제1부회장), 이한빛 성평등 운동 담당 간사가 참여하였으며, 회원YWCA에서는 청년

활동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맞추어 최은주 전주YWCA 성평등 운동 간사, 이체리 안산YWCA Y틴 간사가 함께 하였다. 전체 회의의 일정은 2주였으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표단은 첫 번째 주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회의에 참여할 뿐 아니라 패러럴 이벤트 운영, 연대의 장 마련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 CSW68 회의 참여

대표단의 주요 역할은 회의에 참여하며 국제 정세 및 여러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확인하고, 정부 기관을 견제하며, 다른 단체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우선순위를 세우고 본회의, 사이드 이벤트, 패러럴 이벤트를 균형있게 참여하였다.

먼저 본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으로 참여한 여성가족부 실장의 발표를 현장에서 듣고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세션에 참여하여 성평등 달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확인하였으며, 북유럽 국가에서 진행되는 세션을 통해 향후 한국의 성평등정책의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패러럴 이벤트에서는 특별히 팔레스타



한국YWCA는 이번 CSW68에서 비정부 기구가 운영하는 패러럴 이벤트를 주최했다.

인, 일본 등 회원국YWCA에서 진행하는 세션에 참여하여 연대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팔레스타인YWCA는 패러럴 이벤트에서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팔레스타인YWCA 활동가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공유하였으며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본YWCA는 7명의 청년들이 여성으로서 각자가 처한 교차적인 어려움에 대해 나누었으며, 세계YWCA는 RISE U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펀딩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한국YWCA 대표단은 한국 및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YWCA 활동가들에게는 평화의 선물과 기도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과 일본YWCA와는 연대 식사를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YWCA 패러럴 이벤트

한국YWCA는 CSW68에서도 '전시 성폭력과 전후 폐미니즘 운동'을 주제로 패러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패러럴 이벤트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시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교차적인 피해와 빈곤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체 세션은 김은경 제1부회장의 사회로 피해 증언, 전후 페미니즘 운동, 토론 등 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피해 증언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시성폭력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자료는 정의기억연대에서 제공해 주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시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우크라이나YWCA에서 공유해주었다. 전후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해서는 총 4명의 패널이 참여하였는데,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간사가 한국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고, 마이코 하타 일본YWCA 활동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하여 일본 시민단체의 관점과 참여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우크

라이나YWCA 나탈리아 올리아네츠 회장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회복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여성과 남성의 정의로운 공동체(Just Community of Women and Men)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니키 에쉬우드 목사가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차적인 빈곤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나눔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온 한 참가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국가적 현실과 전쟁범죄에 가담한 선조를 대신하여 사과를 하기도 했고, 다른 참가자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으며, 성폭력 철폐와 빈곤 해결을 위해서 여성 단체 활동에 있어서 성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했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함께 슬퍼했다.

### CSW68 합의문 Agreed Conclusion

CSW68의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합의문을 결의하



였다. 결의된 합의문에는 여성 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열거하였는데, 한국YWCA 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효과적인 참여 강조(11항), 환경 문제에 의해 여성과 소녀들이 불균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12항), 교차적인 차별이 성평등 달성을 저해(13항), 여성의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의 문제제기 및 성평등한 책임 분담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촉구(16항), 성평등 시민사회단체가 겪는 백래시에 대한 우려(17항), 성별빈곤격차에 대한 문제제기(19항)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조달, 재정 확대, 공공 제도 강화, 정책 시행 등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 특히 여성단체와 함께 관련 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YWCA 대표단은 CSW68 회의의 참여를 마친 뒤 한국YWCA연합회 이사회, 한국YWCA 운동이슈 브리핑 등에서 참석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4월 26일(금)에는 UN 여성 성평등센터에서 진행된 CSW68 평가 회의에서 이한빛 간사가 시민단체 관점에서 본 회의의 평가를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은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년으로, 제 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지난 30년 성평등 달성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YWCA도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한국 및 국제사회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대표단 소감

#### 최은주 간사 전주YWCA 성평등운동 담당

뉴욕에서 한 주간 일정 속 다국적의 NGO와 정부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만연한 불평등과 성차별은 물론, 많은 여성들이 빈곤, 기후위기, 전쟁 등의 다양한 교차점에 있다는 걸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YWCA의 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서로의 생존을 매일 확인해야 하는 불안한 현실, 임신한 여성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처참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지 등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참혹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고통 받는 약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성평등 현실을 비추어볼 수 있었던 북유럽 국가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앞서 나간 고민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 부럽기도, 성평등이라는 단어조차 지워지고 있는 한국의 백래시 기류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활동가로서 계속해서 소외된 여성들을 찾아야하고, 기울어진 세상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회의에 참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애쓰고 또 소망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든든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체리 간사 안산YWCA·청년 청소년부 담당

인종과 성별,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위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기후, 경제, 전쟁 등이 얽혀 있으며 교차성에 놓인 여성들이 있음을 이번 기회로 인해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을 둘러싼 빈곤, 교육의 부재, 전시 성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많은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고, 여성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제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며 전쟁, 기후변화, 종교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여러 NGO 단체들을 통해 더욱 가까워서 듣게 되어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성폭력을 주제로 한 한국Y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약자들에게 가혹한지, 또 전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끝없는 트라우마를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민단체의 연대와 지지가 지역의 풀뿌리 운동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시민은 안전한 탈핵사회 원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이하 '316에너지전환대회')가 3월 1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민 800여 명과 120여 단체의 공동주최로 을지로 입구에서 청계로까지의 거리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 참여를 비롯해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 YWCA와 Y-틴 회원, 연합회 회장단과 활동가 등 총 90여 명이 탈핵 사회를 염원하며 모였다.

316에너지전환대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사고 13주년을 기념하며 '탈핵사회'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최 측과 참여자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잇는 윤석열 정권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소형핵발전소(SMR)를 지역 곳곳에 지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 참여한 노동자시민들은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기본권인 에너지 공공성이 지



켜져야 한다는 발언을 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해법을 정치권에 제시하면서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권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독일 탈핵운동가 지구의 벗(부트) 메르그너 회장이 직접 대회에 참석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탈

핵에 실패했다는 것은 거짓뉴스라고 말하며, 핵발전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탈핵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의제 당사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과 사연을 듣는 의제마당에 해당하는 선언대회 1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의 발언과 에너지선언을 낭독하는 선언대회 2부로 진행되었다.



### 이은우 2024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사전부스에 참여하며 작년 923기후행진 때 추억이 새록 새록 떠올랐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고 에너지전환 관련 내용을 춤 동작하였을 때, 일단 너무 귀여웠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으며 가사가 좋아서 Y-틴 활동에도 담에 노래 개사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어진 분야별 의제마당 순서에서 노조분들, 시민분들 등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 잘 알지 못하였던 분들의 관점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특별히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지 그분들의 일자리나 안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반성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배웠고, 우리도 더욱 목소리 내고 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꼭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선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후 시민'으로 더 책임감 있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독일이란 좋은 예가 있듯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 강경화 2024 Y-틴 전국협의회 총무

2024년 3월 16일 을지로~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된 에너지 전환대회에 참여하였다. 에너지전환대회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시위였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핵발전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어의 꿈을 개사한 노래로 탈핵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알리고 재미있는 율동으로 신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독일 분들이 나와 독일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부러웠다. 오늘 이 에너지전환대회로 기후위기와 핵발전소의 관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어른들도 하루빨리 핵발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핵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한음 Y-틴 중부지역 회장

이번 316 에너지전환대회 준비에서 생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 해보았고,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독일 탈핵을 이끄신 분들의 말씀이었는데 독일은 거의 탈핵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었다. 독일은 거의 탈핵 상태에 가까워졌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소를 늘리려고 한다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기엔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후보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분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탈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핵에너지가 필요해. 핵발전소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다. 그렇기에 꼭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길, 더 나은 지구를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 김여진 Y-틴 동부지역 회장

이번 에너지전환대회 참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탈핵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사람들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탈핵을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아 나도 탈핵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독일은 발전소를 거의 없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빨리 핵발전소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에 기후시계에 남은 시간을 듣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통해 나와 같이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한다, 드라마에서 홈쇼핑, 웹툰까지!



지난해 8월 23일(수)에 개최된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에서 참가자들이 '젠더 감수성 있는 심의기구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 영광 ZERO(제로)! 미디어 어워드 🏆

복장 터지게 하는 답답함을 안기는 '답답상 수상 미디어는?'

👉 웹예능

콧바람 승승, 실소를 절로 짓게 하는 '기가 찬상 수상 미디어는?'

👉 숏폼

성차별적 콘텐츠가 쉬지 않고 뿔어져 나오는 '희수분상 수상 미디어는?'

👉 웹 커뮤니티

2018년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1인이 카툰을 통해 남긴 활동 후일담이다. 모니터단은 활동을 마친 후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여러 후일담을 남겼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모두를 지키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는 페미니스트” “(모니터링하며) 분노 포인트와 행복 포인트를 쌤들과 공유했을 때! 속이 시원♡” “함께, 오래 오래! 연대의 힘이란 ㅠㅠ” 모니터단의 후일담에는 활동의 고단함, 그 고단함을 이기고도 남는 벽참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니터단이 활동 종료 후 남긴 후기.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운동을 통해 성평등한 변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원한다. 그래서 활동에 무척 적극적이다.” 이기쁨 서울YWCA 여성운동팀 활동가는 모니터단을 소개하는 내내 모니터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모니터단의 젠더 감수성도 점점 높아져, 보고 내용도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첨예한 교차성을 담보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활동답다.

## 미디어로 숨 쉬는 사회,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는 미디어가 보여준 콘텐츠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디어가 조성한 환경에서 숨을 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서울YWCA가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YWCA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YWCA는 2014년에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은 기본적으로 매체 모니터링과 심의(신청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매체 모니터링에는 12명의 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심의 모니터링에는 4명이 참여한다. 매체 모니터단은 레거시 미디어(“과거에 개발되었으며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모두 모니터링한다. TV 예능과 드라마, 교양, 시사보도, 홈쇼핑,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웹예능,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다룬다. 보통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한다. 매체 모니터링은 레거시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는 A팀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B팀으로 각 6인씩 나뉘어 진행된다. 매체 모니터단은 각 장르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매달 1회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해 내용을 공유한다.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매월 보고서로 작성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서를 포함해 총 13권이 제작된다. 심의 모니터단은 매월 각 6건의 심의신청서를 작성한다. 모니터단이 매월 심의 신청하는 건수는 총 28건이며, 활동 기간 동안의 총 합은 168건에 달한다. 매해 새롭게 모니터단을 구성하기에(물론 2년 연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모니터단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모니터단은 활동을 위한 실무 교



① 이기쁨 담당 활동가가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활동을 설명 중이다.  
 ② 매체 모니터단은 매월 1회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③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 기념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모습.

육은 물론 성평등 미디어 관점을 성숙시키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도 받는다.

“2020년에는 홈쇼핑을 심의한 내용이 방통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모니터단이 홈쇼핑에서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사례’(10건)와 ‘외모에 대한 평가’(7건) 등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제기했는데, 방통통신위원회가 해당 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홈쇼핑이 권고 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홈쇼핑이 권고 처분을 받으면 벌점이 쌓여 방송에 지장이 가다보니 업체 측에서 서울YWCA로 연락해 성평등 교육을 요청했다.” 모니터단은 익숙한 매체의 모니터링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 범위와 방식도 수정해 왔다. 덕분에 홈쇼핑에서 여자 쇼호스트가 음식을 담당하고, 남자 쇼호스트는 시식만 하는 모습, 여자 모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모습 등 성차별적인 장면을 ‘문제’로 판명 받아 미디어 상에서 점차 몰아내게 한 것이다.

**성명서, 논평으로 “그 콘텐츠 문제 있습니다!”**

모니터단은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이슈가 발생하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성명서, 논평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에는 개그맨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이 진행한 넷플릭스 <성+인물: 일본편> 시리즈 방송 삭제와 제작진의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리즈는 AV **일본에서 제작하는 포르노를 포함한 성인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걸로 성범죄율을 낮추는 것 같다”는 해당 산업 종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방영해 ‘AV 미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YWCA 여성운동팀은 <성+인물: 일본편>이 AV 콘텐츠의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내용, 여성 배우에게 성 착취적인 AV 산업 환경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남성의 성적 욕망과 행위를 자연화해 그에 기반한 폭력을 정당화하는)에 근거한 이야기만을 나열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 논평은 여성신문에 보도되고, 각 웹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모니터단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십년의 시간동안 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녹록지 않은 작업들에 비하면 그 변화를 결코 ‘빠르다’ 할 수는 없다. 이기



모니터단이 2014년부터 발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쁨 활동가는 “변화가 조금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2023년에는 특별히 심의신청에 집중해 250건의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권고 조치를 받은 건수는 1건이었다. 2022년에도 총 신청 건수 140건 중 4건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모니터단은 이러한 현실에 실망하기보다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을 열었다.

**과거 보고서도 현재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모니터단은 지난해인 2023년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을 기념해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었고, 10주년 보고서 2권을 출간했다. 보고서는 예능과 드라마의 10년 변화를 각각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처럼, 모니터링 내용도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 걸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단의 관점이 교차성에 기반해 예리하고 촘촘해진 것이다. 이기쁨 활동가는 “그래서 10주년 보고서를 쓸 때 2023년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기록을 단지 과거로 묻어두기보다 현재 관점에서 이해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매달 매체 모니터링과 심의를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이슈

대응을 위한 성명서 및 논평 작성,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시민 공론장 개최까지... 모니터링단의 업무는 녹록지 않다. 미디어 매체 범위가 확장되면 모니터링 범위 또한 이에 맞게 확장해야 하고 말이다. 이기쁨 활동가는 이러한 녹록지 않은 활동의 동력으로 작지만 큰 변화를 이야기했다. “2014년~15년만 해도 드라마나 예능에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콘텐츠들이 넘쳐났다. 그런데 지금은 성평등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변화를 보면서,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구나 싶어 뿌듯하다.” 아울러 활동으로 얻는 자부심도 이야기했다. “미디어 관련한 보고서나 기사, 논문 등에서 모니터단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KBS가 주최한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서울총회에서 서울YWCA 여성운동팀이 성평등 미디어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았다. 성과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활동이다 보니 자부심을 느낀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존재를 움직이는 건 ‘의미’의 의지라 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그의 말이 떠올랐다.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활동이 ‘내가 의미 있다 여기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YWCA의 ‘Y(Young, 젊은)’다운 활동 말이다.

#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석탄발전소?



## 뜨거운 봄을 더 뜨겁게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소식

무더운 봄을 보낸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작년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48도 더 높았던 해였다.<sup>1</sup> 우리가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한계선인 '1.5도'에 아주 가까워진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올해 지구기

온 상승폭이 '1.5도'<sup>2</sup> 제한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전세계는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최대배출원인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하고 있고, 지난 4월 말에는 주요 7개국 G7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아주 느린 탈석탄과 아주 빠른 핵발전 확대정책에 근거한다. '1.5도'의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하지만, 2030년에도 한국에는 석탄발전소 41기가 여전히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척블루파워'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가 건설 중이다. 1호기가 올해 5월 중, 2호기가 9월 중에 완공예정되어 있다. 삼척블루파워 1, 2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00만 여 톤에 달한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환경부는 현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전력 부문에서 약 1,000만톤(2022-23년)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홍보했다. 물론 현정부의 핵발전 확대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것도 물음표이지만, 삼척블루파워 가동으로 이



는 모두 물거품이 될 예정이니 현정부가 기후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이다.

## 삼척의 이야기

강원도의 작은 도시 삼척은 시멘트 산업과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을 수도권에 보내며 발전했다. 해당 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LNG, 석탄발전, 핵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이는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만 이어졌을 뿐, 대다수의 주민들은 배제되었다.

경제효과나 인구유입이 확실시 되는 산업은 늘 수도권에 배치되기 마련이다. 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력생산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핵폐기장은 늘 그 외 지역에 배치되어왔다. 최근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유치 확정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셌던 것도 그 이유이다. 아니나 다를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핵발전소 7기에 맞먹는 전력이 필요하니 지역에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이다. 따라서 '전기 식민지'로 착취되는 지역에서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발전시설, 더군다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는 지금껏 그랬듯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다.

요즘 삼척 어디를 가나 'H2 청정수도도시'라는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척에서 진행되는 수소사업은 석탄발전소 부지에서 수소 혼소, 암모니아 혼소 등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써 기존의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이 결코 아니다. 수소경제를 앞세워 기존의 석탄발전소나 LNG터미널과 같은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을 망치고 있다.

삼척의 망망해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10리에 걸쳐 펼쳐진 장관이라는 뜻에서 '명사십리'라는 별칭이 있는 망망해변은 매년 유채꽃 축제와 여름 해수욕장으로 매우 인기있는 관광지였다. 한때는 방탄소년단 앨범 재킷 촬영지가 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4년만에 우리가 기억하는 망망해변은 사라졌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포스코가 2020년 유연탄 하역장을 망망해변에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파제는 해류를 바꾼다. 바뀐 물길은 해변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다량의 모래가 유실되어 절벽의 형태

+++

1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

2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제한할 것을 협의한 바 있다.



가 되어가고 있다. 해안침식이 논란이 되자, 포스코는 모래가 쓸려나간 자리에 공사장에서 나온 하수 찌꺼기를 쏟아 부었다. 발전소 터에서 나온 석회석도 바다에 버렸다. 맹방 해변은 오염된 흙과, 그 흙에서 나온 독성물질에 죽은 명주조개 사체가 뒤섞인 채 지금 이순간에도 침식되고 있다. 포스코의 맹방해변 사용에 허가를 내린 정치인들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동해안을 따라 세워진 시멘트 공장들이 하역장을 건설하면서 해안침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삼척블루파워’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해안침식의 가속화는 물론, 대기오염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석탄발전소에서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폐효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삼척블루파워’가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해있는 삼척시내에서 불과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이다. 삼척 시청에서는 ‘삼척블루파워’의 굴뚝이 보인다. 시운전 기간동안 삼척시민들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

#### 4월 20일, “함께 끄자, 삼척 석탄” 삼척집중행동

4월 19일(금)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가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YWCA가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급히 삼척집중행동을 준비했다. 당장 우리의 행동으로 석탄발전소를 막아낼 수 없겠지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포스코의 행태와 사업을 허가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에 어떤 방식이든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해서 4월 20일(토)에 진행된 “함께 끄자, 삼척 석탄” 삼척집중행동에는 연합회를 비롯해 강릉, 동해, 원주, 춘천YWCA 활동가들과 청년, 청소년, 노조, 환경 등 다양한 시민단체 그리고 삼척주민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사전행사로 파괴된 맹방해변의 현장을 돌아보고, 삼척블루파워 본사앞으로 돌아와 본집회를 열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대표는 지금껏 삼척블루파워를 막아내기 위해 삼척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 온 삼척 우체국 앞 선전전이 곧 1,000번째를 맞는다며, 삼척시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석탄발전소를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5만명의 국민청



원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탈석탄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정부는 제대로 기후대응을 하거나 삼척 시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음을 토로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탄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의 이야기를 전했다. “당진, 보령,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대기오염물질배출 1위를 차지하는 충남은 지난 1983년 석탄발전 가동을 시작으로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 파괴,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암발병 및 재산상의 피해를 겪어왔다.” 고 발언을 시작했다. 조순형 활동가는 정부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남 지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를 시작하면서 강원 지역에서는 새로 석탄발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충남에서 일어난 피해가 삼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삼척시내로 행진하며,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사업 중단과 정부의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기후대응의 시작, 삼척블루파워 중단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석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책임을 고려한다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과 기후를 망치는 석탄발전이 아니라, 고작 8%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확대해나갈지를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포스코는 현재 송배전망과 재정적 문제로 상업운전시작을 내년으로 미뤘다. 그러나 석탄 하역장이 철거되지 않는 한 맹방해변은 계속해서 침식될 것이다.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거대정당들은 인재영입 1호로 ‘기후후보자’들을 들이며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가 정말 기후에 진심이라면,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로드맵과, 삼척을 비롯한 모든 지역민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담긴 탈석탄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눈치를 봐야할 것은 온실가스배출 1위기업인 포스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낼 시민들이다. 🌱

# 여성과 약자,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4 YWCA 전국회장단연수가 4월 30일(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YWCA 전국회장단연수는 YWCA 회장단의 역할과 사명, YWCA 중점운동을 이해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총 44개 회원Y(강릉, 거제, 고양, 광양, 광주, 군산,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부천, 서귀포, 서울,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Y)와 연합회 회장단 총 79명이 참석했다.

전국회장단연수는 조은영 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여는 예배로 시작했다. 이혜경 천안Y 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성문밖교회 협동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YWCA 회장단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손 목사는 YWCA 회장단을 향해 “YWCA에서 그간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예언적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회장, 부회장으로 복된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두에게 좋은 삶’을 주시는 하

나님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사회적으로도 비영리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고, 49개 회원Y의 사단법인 설립으로 재구조화를 완료한 YWCA는 회장단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각 단위별 교육에서 비영리 거버넌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장단연수에서도 ‘비영리 거버넌스와 이사회, 회장단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 소장은 “YWCA가 민주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번 국회가 정의·평화·생명 사회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국 회장단.

적이고 투명하며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서 사명을 달성하도록 하는 비영리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회장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대표, 실무진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공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맥락과 배경 하에서 YWCA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사회 역할’(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 강의로 진행하였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가 성장과 민주화의 역설적인 현상으로 불신, 불안, 불안의 3불 사회가 되었음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인 ‘정의, 연대, 평등,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실행 역량으로 ‘사회적 응집성, 복지와 안전망, 정치참여, 인적자본’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가 잘 구현되는 사회가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이지만 한국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8위로 ‘낮은 사회적 품격’의 사회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은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을 포함하는 공공성의 점수도

낮은 수치로 나왔는데 플랫폼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현재,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다양한 섹터의 중요 행위자들과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의 의제를 공유하며 협업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YWCA 핵심과제인 ‘YWCA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지역운동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회원Y 활동사례 나눔> 시간을 마련하고 총 5개 회원Y(안산, 고양, 청주, 대전, 대구Y) 활동을 공유했다. 이강숙 안산Y 회장은 ‘고양Y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주제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각 대상별로 시민환경교육 활동을 나누었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실천역량을 높이고 Y가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혜경 고양Y 회장은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고양시 정책을 쟁점관점으로 모니터링한 사례와 여성이슈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고양여성영화제 사례를 발표하고 ‘시민이 움직이면 시도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성자 청주Y 회장은 ‘회원조직화-여



세운동'을 발표했다. 여성주의학교, 여세모임, 질문공모전과 같은 활동으로 시민들의 시민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시민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의제를 실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지역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홍유미 대전Y 회장은 '대전Y 회원확대 및 후원'을 주제로 회원기부나눔축제와 후원의 밤과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Y운동 소개와 시민과의 만남을 활성화하며 협력자를 발굴해나가고 있음을 발표했다. 끝으로 김연희 대구Y 회장이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YWCA 카부츠데이'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구Y 카부츠데이'는 대구Y 홍보, 중점운동 실천력 확산, 시민참여운동 활성화라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구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건강한 민관협력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에서는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번 국회가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여성과 약자,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5개 권역협의회 회장(목포Y

강경숙, 대구Y 김연희, 안산Y 이강숙, 천안Y 이혜경, 서울Y 조연신 회장)이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러진 퍼포먼스에서는 연합회 회장, 부회장 및 광역시, 도협의회 대표 총10인(연합회 조은영 회장, 연합회 김은경 부회장,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원주Y 이수복, 포항Y 김인애, 광양Y 장삼희, 전주Y 이현순, 청주Y 윤성자, 제주Y 정윤희, 부산Y 김영성 부회장)이 현수막 국회의 각 기동에는 적혀있는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의 총 10개의 정책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참가자 모두가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 메시지를 들고 전체 사진을 찍으며 YWCA 중점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YWCA 재구조화 이후 자치성,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지닌 기독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 연합회와 회원Y가 더욱 단단해진 연대와 결속력으로 YWCA 목적을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지금, YWCA 회장단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평화와 화해가 가득한 세상,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였다. 🙏

## 성명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현하라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선거는 현 정치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새 시대를 향한 요구이다. 향후 4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상하는 개혁과 통섭의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의 편린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과 지역을 가리며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진실을 왜곡하여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분노와 절망, 갈등과 적대가 사회 곳곳에 깊이 배어 있지만 해결을 위한 대책은 미약하고, 선거조차도 정책에 기반하기보다는 비방과 폭로 위주의 선거가 당연시되어왔다. 한국YWCA는 이번 총선에도 각 정당에 정책의제를 배포하고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을 위한 각 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는 5월 30일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여성과 약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는 정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되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기후정치'는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 탈석탄법 제정과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힘써야 한다. 건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폐기가 불가능하며 위험성이 높은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하며, 성과도 안전 대책도 없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성별분리 통풍기는 물론, 성별영향평가 시행과 기후 위기 상황에 적합한 공공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책을 통해 정의로운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우리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여성 혐오는 성평등 정책의 부재로 이어져왔다. 한국은 성 격차 및 성별임금격차 지수가 OECD 최하위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여성 관련 정책 도입과 실행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22대 여성 국회의원은 비율은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24명 총 60명으로 20%이며, 후보자 비율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었다. 공직 및 모든 정부 정책에 여성의 동등 참여, 공직선거와 정당 공천의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등 여성 대표성 확대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힘써야 하며,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22대 국회의원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평화문화 확산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촉구한다.

한반도 정세는 대립과 갈등에 더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격랑에 빠져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협력의 대치구도가 강화되면서 남북은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평화 통일 정책 기구를 비롯한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 세대, 공직자들의 평화 교육, 일반 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을 통합한 평화교육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북한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전국 50개 지역의 한국YWCA는 새로운 국회가 변화를 위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비롯하여 성평등 관점의 기후 위기 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을 향한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하며, 이 정책들이 이 사회에 반영되고 정착되는 날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4년 4월 30일

한국YWCA 50개 지역 전국 회장단

# 우리가 나누는 '기후정의'



지난 1월, 2024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전국운동주제로 'YWCA 기후정의아카데미'가 채택됐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 3명의 임원들은 상반기 동안 북클럽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원 북클럽 첫번째 책은 한재각의 <기후정의(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이다. 이번 청년토크에서는 총 4차례 진행된 북클럽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신는다.

## '기후위기'라는 워딩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은?

**보라:** 북극곰보다는 거북이가 먼저 떠올랐어. 둘 다 가까이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

**하늘:** 해가 지날 수록 말라가는 강, 자연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먼저 생각나.

**주황:**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 포스터를 그리고, 기후이상으로 인해 미래가 위협하다는 경고성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문제는 계속 악화되어 있어. 기후위기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정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연두:** 예전에는 호주 산불 등 자연이나 동물의 피해가 먼저 생각났었는데 Y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우리 주변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보라:** 모두가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건 인식하지만 정의의 관점으로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

**노랑:** 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동물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지 돌아봐야 해.

**주황:**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게 기후위기를 조망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

## 누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가?

**주황:** 책을 읽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

**보라:** 대답하기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과연 누가 책임져

야 할까? 파고들게 되면 나조차도 내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회피할 것 같아.

**연두:**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들이 돈을 딱딱 잘 내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명확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해.

**노랑:** 음식과 비교해서 '친구는 비싼 파스타를 먹고 나는 저렴한 빵을 먹었을 때 우리가 같이 먹었으니깐 똑같이 돈을 반반 내자'라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섭섭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

**보라:** 평소 빈티지 의류를 좋아하는데 빈티지 문화에서 '입질연(입고 질리면 연락주세요.)'이라는 문화가 있어. 기후와 관련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천을 하는 게 요즘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해.

**주황:** 해결하려고 하면할수록 논쟁만 많아지고, 해결은 안돼. 문제는 n분의 1을 하려면 널 역량이 절대 없는 국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참 힘든 문제야.

##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 VS 성장을 위한 탄소배출

**하늘:** 성장을 통해 조금 더 두둑해진 국가가 성장을 위해 탄소배출을 했으니 생존을 위해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에게 복지 개념으로 도움을 줘야할 것 같아.

**연두:** 최근 배출이 많아진 중국이나 인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국이 지은 공장 때문이거나 식재료를

키우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정작 자국민들은 값이 비싸 소비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넘어가서 소비하게 돼.

**보라:** 그런데 책임은 그 국가에서 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 자본주의의 문제야.

**노랑:** 자본주의가 잘 작동했을 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자본을 벌고 자본을 환원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순기능이었을텐데, 환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는 이미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공장이 모두를 위해 탄소배출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모두가 잘 살자고 돌아간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을 해줘야 해.

##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줄일 수 있나?

**보라:** 책에 '미국적 삶을 버릴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나와서 '이제 진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 문장은 미국뿐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같아. 소비적인 삶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불평등은 별개가 아니야. 선진국들이 탄소를 사고파는 행위, 공장들이 서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돈이 있으니깐 환경을 사고, 사유화하는 것처럼 느껴져.

**노랑:**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을 잠시 중단한 경험이 있잖아. 눈으로 깨끗해진 환경을 보면서 진짜 성장을 멈춰야 하나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연두:**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야생동물의 공간을 침범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공장가동이 멈춰서 대기환경은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또 다른 환경오염은 심각해진 결과가 참 슬프다.

**주황:** 코로나19를 보면서 사람들은 '뭔일이 나아 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노랑:** '시스템의 실패'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 우리의 성장주의적 시스템과 과학기술 발전의 맹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어. 앞으로 '탈성장'이라는 단어가 새

로운 담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 세계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까?

**주황:** 서로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유도하는 게 필요해. 결국에는 세계시민들, 개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문제야.

**보라:** 결국 마음을 다잡고 해보려고 해도 문제를 조정하는 것에 지치지 마련이야.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하늘:** 일단 내 주변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해. 나와 우리집부터 시작해서 우리교회, 우리동네를 바꿔보는 과정들을 겪다보면 조금씩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랑:** 일상의 문화처럼 법적으로 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문화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오늘날 사는 것처럼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지구와 주변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야 해.

## YWCA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후정의 운동이 있다면?

**주황:** 기후정의 운동이 200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기후정의라는 이야기를 2020년에 처음 들었어. 책을 읽으며 국제기후정의 운동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다는 말이 허무하기도 했어. 활동가가 많고, 실천이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의 실천이, 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늘:** 사실 기독교인에게 '기후위기, 기후정의'를 설득하기는 쉬워. 우리가 왜 생명과 지구를 지켜야 하는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오히려 비기독교인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

**노랑:** 과거에 시민운동을 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담론이 기억난다기보다는 작게 작게 했던 것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 '하나바다 운동'을 Y에서 시작했잖아. 우리가 이참에 힘하게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 신데렐라 로맨스가 계급 격차를 극복하는 법

국내 로맨스 드라마의 양대 스타작가로 꼽히는 이는 김은숙 작가와 박지은 작가다. 김은숙 작가는 신데렐라 로맨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파리의 연인>(SBS)을 시작으로 <프라하의 연인>(SBS), <시크릿 가든>(SBS), <상속자들>(SBS), <태양의 후예>(KBS), <미스터 션샤인>(tvN), <도깨비>(tvN) 등 내놓는 작품마다 성공을 거두면서 로맨스의 거장으로 우뚝 섰고, 최근에는 복수극인 <더 글로리>(넷플릭스)를 통해 한층 다양해진 장르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내조의 여왕>(MBC), <역전의 여왕>(MBC), <녕쿨째 굴러온 당신>(KBS) 등 초반의 흥행작은 가정멜로 드라마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박지은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SBS)의 글로벌 흥행을 기점으로 <푸른 바다의 전설>(SBS), <사랑의 불시착>(tvN), 그리고 최근작 <눈물의 여왕>(tvN)에 이르기까지 로맨스 장르에 더 집중한다.

### 로맨스 드라마에서 계급 갈등 이슈 전면에 부각

흥미로운 점은 두 작가 모두 최근작에서 계급 갈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더 글로리>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상류층에 속한 가해자들은 계급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는 현실을 반영해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최상위층과 더 아래 계급으로 서열 구도가 나뉘면서 위에서 아래로 폭력의 하청이 주어지는 양상을 묘사한 점이 주목받았다. 주인공인 학교폭력 생존자 문동은(송

혜교)과 가정폭력 생존자 강현남(엄혜란)은 바로 그 서열 구도를 이용해 가해자 그룹을 분열시켜 복수에 성공한다. 요컨대 신계급사회 한국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통찰 위에 그려낸 복수극이라는 점이 <더 글로리>의 핵심 성공 비결이자 호평 요인이었다.

그런가 하면 <눈물의 여왕>은 신분 상승 판타지의 결정판인 신데렐라 로맨스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동화적 결말 이후의 쓰디쓴 후일담에 주목함으로써 계급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주인공 박현우(김수현)는 용두리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국내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소위 '개천에서 난 용' 캐릭터다. 대기업 퀸즈그룹 법무팀에 입사한 그는 그룹 후계자 신분을 감추고 인턴 직원으로 일하던 홍해인(김지연)과 사랑에 빠져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신데렐라의 삶은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두 사람의 현저한 계급 격차는 결혼 기간 내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우와 해인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로맨스 장르에서조차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한층 공고해진 계급 격차의 현실을 새삼 환기한다.

돌이켜보면 신데렐라 로맨스 드라마 장르의 이 같은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2010년대부터 두드러졌다. 가령 김은숙 작가의 2010년 작품 <시크릿 가든>은 재벌3세 남주인공과 가난한 여주인공의 영혼이 뒤바뀌면서 서로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판타지를 통해 가까스로 계급 격차를 극복한다.




그런가 하면 2012년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는 꿈도 사치인 현실에 절망한 여주인공이 '청담동 며느리 되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N포 세대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그려내 호평받은 바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급부상하던 '수저계급론'을 소재로, 흠수저 출신 주인공의 인생 역전과 잇단 반전을 통해 신데렐라 스토리의 허구성을 성찰한 <황금빛 내 인생>(2017, KBS) 같은 수작도 등장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이제 우리 시대가 마냥 낭만동화 같지만 한 신데렐라 로맨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절이 됐음을 말해준다.

### '개천용' 시대의 종식

이러한 가운데 <눈물의 여왕>은 신데렐라 로맨스의 쓸쓸한 후일담을 코믹하게 그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현우는 남자판 신데렐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재벌가에 입성하지만 혹독한 처가살이를 하게 된다. 첫 회에서 퀸즈가 조상 제사를 준비하는 사위들이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부치며 쏟아내는 울분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지만, 실상 그러한 풍경을 만들어낸 힘이 계급 권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편하게 웃을 수만은 없다. 박현우의 처가살이 수난기는 '개천용' 시대의 종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쓰라리게 느껴진다. 개천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초고속 경제성장기의 신화적 아이콘이다. 흔히 '맨주먹 성공 신화'로 널리 알려진 국내

재벌 1세대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눈물의 여왕>에서도 묘사된, '명동 뒷골목 구두담이 소년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일궈낸' 퀸즈그룹 홍만대(김갑수) 회장의 창업기가 그 전형적인 성공 신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개천용 신화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수저계급론 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부의 대물림 현상은 심화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도 끊어졌다. 용두리의 용 박현우가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재벌3세 홍해인의 파격적인 청혼으로 신데렐라가 되고, 그마저도 결혼 이후에는 퀸즈그룹 오너가의 뒤치닥거리를 해주는 신세가 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 낭만적 사랑의 판타지로 계급격차 극복

<눈물의 여왕>이 로맨스 장르로서 계급 격차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낭만적 사랑의 판타지를 한층 강조하는 전략이다. 매회 에필로그 형식으로 현우와 해인의 숨겨진 인연을 드러내는 <눈물의 여왕>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운명적 서사의 강도를 더해나간다. 가령 5회 에필로그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해인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준 남학생이 현우였음이 확인되면서 로맨스 장르에서 가장 힘이 센 '첫사랑' 서사가 구축된다. 더 나아가 12회 에필로그에서는 어린 시절 바다에 빠진 해인을 구해준 소년이 바로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첫사랑 서사에 이어 동화 <인어공주>와도 같은 강력한 구원의 서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거듭되는 인연의 묘사를 통해 현우와 해인의 서사는 그 어떤 현실의 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완성한다. 계급의 격차도, 해인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도 두 사람의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라마의 결말이, 천국을 암시하는 장소에서 있는 현우와 해인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의 판타지이기 때문이다. 

# 자연과 인간 삶을 잇는 아름답고 따뜻한 연결자, 제1세대 조경가 정영선



## 조경을 통해 되살아나는 자연과 삶

이 삭막하고 고단한 도시의 삶을 그래도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빌딩 숲들 사이로 길이 있고, 그 속에 놀랍게도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자기 생명을 한껏 뽐내는 작은 숲이 있고 실개천이 흐른다. 그리고 거기에 재잘거리는 새들과 풀벌레들이 명랑하게 깃들여 산다. 이 무자비한 도시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소박한 자연을 만난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바퀴에서 떨어져나와 잠시 안식을 얻는 것이고, 상처받고 고통스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춘선 숲길과 예술의 전당,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과 선유도공원, 아산병원, 용인의 호암미술관과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등 전국 곳곳의 명소에서 만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어떤 목적을 가진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우연히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갑자기 새와 벌레들이 모여들었을 터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필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과 자연의 온갖 생명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탐구하고 그들을 이어주는 부지런하고 따스한 한 사람의 손길이 있다. 우리나라 제1세대 조경가 정영선, 바로 그녀의 손길이다. <이타미 준의 바다> 라는 작품을 통해 공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정다운의 <땅에 쓰는 시>는 바로 조경가 정영선이 이 땅 곳곳에 남긴 자연과 사람, 경관과 장소의 새롭고 놀라운 탄생을 다룬다. 정다운 감독은 오랫동안 자연을 어떻게 복원하고 치유할 수 있을지 탐구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희망적 방안이 정영선의 '조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구체적인 작업을 바로 이 영화를 통해 드러낸다.

## 자연과 사람, 생명과 구조물의 연결자

영화는 조경가 정영선의 극진한 탐구와 노력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경관들을 부지런히 보여준다. 팔순이 넘은 조경가가 풀꽃들을 향해 매일매일 "아 이쁘다"를 연발하며 가꾼 양평집 정원부터, 서울 도심 장소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부한 생태 장소가 된 서울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물하는 아산병원의 주변공간,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이웃공동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도록 재창조된 경춘선 숲길,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경관이 정갈하게 자리잡은 전국 곳곳의 개인집 등등, 그가 평생을 거쳐 노력과 정성을 다해 만들어온 경관들이 영화

속에서 찬란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조경 프로젝트를 의뢰받으면 난 먼저 그 땅을 여러 번 가봐. 가능한 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나는 일종의 '연결사'로 보면 돼"

양평집에서 조경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한 이 말은 바로 정영선 조경가의 조경철학이 잘 담겨 있다. 조경은 단지 탐욕스럽고 요란하게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들여놓고 가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형과 생태, 말하자면 돌 하나와 물, 그 주변에 생태를 이루는 풀꽃과 새, 벌레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선언한 셈이다.

어릴 적 시인이 되고 싶어한 작가는 아버지의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알았다. 결국 종이 위에 글을 쓰는 시인의 길을 가진 않았지만 그는 대신 우리 땅 곳곳의 자연경관과 생태를 보존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영화 제목 그대로 '땅에 쓰는 시'를 완성해간다.

##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은근토가 개발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조경가 정영선의 안타까움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크고 화려하고 건물주의 위세를 드러내는 조경이나 편리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조경들이 대세를 이루고 지형과 생태계와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의 고집은 작업자들과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 정영선의 조경철학은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여의도 셋강공원 조성 때만 해도 공무원들은 화려한 꽃들과 인조물들이 없는 그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셋강과 그곳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을 되살려야겠다는 의지는 멋지게 되살아나 셋강은 수달과 황조롱이가 사는 도시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이뿐 아니다. 경춘선 폐로 위에 만들어진 숲길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경관을 넘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자기 삶을 성찰하고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며 서로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한 공간으로 멋지게 탄생했다.

선유도공원도 마찬가지다. 선유도공원은 폐쇄된 상수도 정수장을 그대로 살리고 그곳에 수생식물을 심어 풍성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儉而不陋 華而不侈, 즉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철학은 정영선의 조경작업에서 일관되게 관철된다. 그의 어린 시절 마당과 들뜰에 지천이었던 미나리아재비, 쪽부쟁이를 비롯한 토종 들꽃들은 빼어나게 화려하고 특이하지 않지만 우리 산과 들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경관이였다. 하지만 점차 외래종에 밀려 사라져가는 이땅의 토종식물과 생태를 되살리면서 아름답고도 현대적인 풍경을 만들어가는 그의 노력은 중단이 없다. 그리고 그의 '연결사'로서의 노력은 자연과 사람, 건물과 생태계의 연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으로 계속된다. 영화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나오는 아이가 정원에서 뛰노는 모습은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조경가 정영선이 가진 간절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일 게다. 난폭한 개발과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기후위기 현실에서 그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존의 것을 더욱 아름답게 변형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는" 조경가의 역할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다. 우리가 그저 누군가가 정성스레 가꾼 경관을 그저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이 땅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무감하다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조경은 땅에 쓰는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듯, 우리가 섬세히 손질하고 쓰다듬고 가꾸는 정원이 모든 이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조경가 정영선의 이 소망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커다랗게 울려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길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4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연합회에서 기독교여성의 성경읽기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라는 교재를 집필한 송진순 목사(이화여자대학교교회 부목사)가 누가복음 5장 4-6절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도했다.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1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구약성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은 목사가 에스겔서 47장 6-12절, 마태복음 28장 6-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가는 길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연대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5월 월례아침기도회



5월 월례아침기도회가 5월 2일(목)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기독교민회와 차별과 혐

오가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네트워크의 연구분과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혜진 목사님께서 시편 55장 12-17절, 마가복음 15장 33-37절 말씀을 바탕으로 '젠더 폭력 희생자들과 함께 읽는 탄식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젠더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행동은 2월 28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활동해 온 한반도 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행위와 위협을 중단할 것 ▲위기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복원할 것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도를 중단할 것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4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 개최



2024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이 3월 6일(수)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운동과 운영정책,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이해하기 위

한 필수교육으로 총 8명의 회원YWCA 신입 사무총장(거제, 광주, 김해, 논산, 수원, 춘천, 충주, 평택)이 참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신입 사무총장들은 'YWCA 목적과 정체성'(이숙진 이화여대 교수), 'YWCA 운영정책 및 사무총장 역할 이해'(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 'YWCA 운동정책과 지역운동 과제'(최수산나 연합회 국장) 강의와 95개 논제를 통한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을 통해 회원YWCA 사무총장으로서는 헌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24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YWCA 성명서 발표



한국YWCA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서 <혈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로 나아갑시다>를 발표했다. 한국YWCA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혐오와 배제, 구조적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겪는 교차적인 차별을 외면하는 현실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직시와 여성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YW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0년을 넘어, 이 땅에 모든 혐오와 배제, 불평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결의했다.

제6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68) 한국YWCA 대표단 파견



3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제6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가 여성 빈곤을 주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됐다. 연합회는 김은경 부회장, 이한빛 성평등운동 간사, 회원YWCA 청년활동가인 전주YWCA 최은주 간사, 안산YWCA 이체리 간사 등 총 4인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한국YWCA 대표단은 본회의에 참여해 여성가족부 실장의 발언을 확인하고, 세계YWCA 및 여러 에큐메니칼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이드 이벤트 및 패러럴 이벤트에 참여했다. 3월 15일(금)에는 '전시 성폭력과 전후 페미니즘 운동'을 주

제로 패러럴 이벤트를 운영했다. 한국YWCA 패러럴 이벤트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시성폭력을 중심으로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교차적인 피해와 빈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주제로 한 본회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성명서는 회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2024년 1차 기후정의 기도회  
'기후총선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도회'



연합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첫 번째 기후정의 기도회가 지난 3월 12일(화) 저녁 6시 30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13주년 주간에 열린 이번 기도회는 '기후총선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영현, 서울제일교회의 김명일,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윤향미는 각각 기후총선과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향린교회 김지목 목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눴다.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은 성명서 '목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를 통해 기후총선과 탈핵 에너지전환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연합회 고마움 활동가의 인도에 따라 엘름댄스에 참여하며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로 신음하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2차 기후정의기도회는 6월 말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된다.

2024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지역여성청년활동가 세 팀 지원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가 올하는 세 팀의 지역여성청년활동가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온라인 모집과 심사를 통해 '초록놀이터' 기독교 생태교육 콘텐츠 제작 '호이요-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지리산 청년네트워크' '위드-성평등한 학교만들기' 세 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팀은 4월 24일(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7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22년 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매년 선발팀을 한 팀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탈핵시민행동 총선 토론회



연합회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핵진흥으로 가능한가'를 열었다. 핵발전소 현안 지역과 서울에서 활동 중인 참석자들은 3월 14일(목) 오후 3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 모였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 핵진흥 정책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경주, 대전, 영광, 울산의 핵발전소 현안 지역 활동가들이 각각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대전 하나로 원자로 및 연구개발, 고준위 핵폐기물,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 토론했다. 조현호 녹색정의당 비례후보자도 참석해 기후대응을 위해서라도 탈핵은 필수적인 선택임을 분명히 하며, 녹색정의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했다. 본 토론회는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독일 지구의 벗 BUND 초청 간담회



한국도 독일처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연합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독일 지구의 벗 BUND(분트) 초청 간담회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로">를 3월 15일(금) 오후 6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맞아 독일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련 운동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후버트 바이거 박사(분트 독일 전 회장)와 리차드 메르

그너(분트 바이에른 지부) 회장은 독일의 탈핵운동의 역사와 에너지전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1957년 최초 연구용 원자로를 설립한 이후 핵발전소 건립을 지속 추진해왔던 독일이 1970년대 활성화된 탈핵운동과 체르노빌·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로 인해 탈핵을 택하게 된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외에 대안 없다"는 독일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를 에너지전환대회



지난 3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기억하며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본 집회는 연합회를 포함한 120여 개 공동주최 단체와 800여 명의 추진위원이 함께했다. 조은영 회장과 이은영 제2부회장, 박윤애 이사, 구정혜 사무총장을 비롯해 연합회 활동가들과 고양, 광주, 남양주, 부천, 세종, 수원, 인천, 청주, 하남YWCA, 대학·청년Y와 Y-틴 등 총 81명이 참석했다. 에너지전환대회는 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됐다. YWCA 활동가들은 탈핵부스와 에너지전환 만민소를 운영하고 참여하며 연대했다. 이번 대회는 기후 당사자들의 발언과 사연을 듣는 1부와 참여자 스스로 에너지전환을 선언하는 2부로 진행됐다. 대회 참석자들은 탈핵과 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민영화 반대,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기후총선 등 총 6가지 주제 별 부스에 참여하고 직접 만든 피켓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 2024년 제1차 YWCA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2024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30분 서울YWCA에서 열렸다. 이번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2024년 YWCA 운동·운영정책 실천방안 논의 및 사무총장의 리더십 역량강화, 회원YWCA 정책 및 관련 사안을 협

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 주제 강연은 이태호 소장(참여연대 운영위원장·평화군축센터)이 맡았다. 이태호 소장은 '4.10 총선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행동의 기초 ▲유권자의 역할과 기능 ▲헌 선거제도 ▲22대 총선의 특징 ▲YWCA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명신 소장은 '비영리 거버넌스와 사무총장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어진 사무회의에서는 2023년 사무총장협의회비 보고와 사무총장협의회 서기 선출(이규숙 안양과 천군포의왕YWCA 사무총장), YWCA 회원대회의 목적과 필요성·주기·진행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또한 '2024년 한국 YWCA 총선 대응 운동', '회원YWCA 재구조화 및 공익법인 관련 사항 안내', '회원YWCA 법인행정운영 매뉴얼', '2024년 연합회 연간 일정' 등의 공유안건도 논의했다.

###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정책토론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0일(수)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묻은 바 있다. 답변서에서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연합회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에코생협,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 등이 함께하는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2024 YWCA 신임이사교육



2024 YWCA 신임이사교육이 3월 21일(목)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YWCA 신임이사교육은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 YWCA 목적과 정체성, 운동·운영정책을 이해하고, 이사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 13개 회원YWCA(군산, 남양주, 논산, 대구, 대전, 서귀포, 순천, 안양, 여수, 의정부, 인천, 천안, 춘천)의 신임이사 29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장운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YWCA 목적과 정체성', 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의 '재구조화 경과와 YWCA 운영 이해', 최수산나 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의 'YWCA 운동의 흐름과 운동정책 이해',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의 '비영리 거버넌스와 YWCA 이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교육 후에 신임 이사들은 소감을 나누며 회원YWCA 이사로서 역할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2024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



2024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3월 22일(금) 씩크머니 강사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YWCA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사교육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형태의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YWCA가 운영하는 씩크머니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작으로 YWCA의 가치를 담은 기후와 경제교육, 경제 신문을 활용하는 N.I.E 경제교육, 합리적 소비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러졌으며, 참여한 강사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씩크머니 프로그램은 올해 전국 24개 회원YWCA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 2024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교육 개최



2024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교육이 총 19명의 법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토)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연합회 법인이사교육은 2024~2025년 임기를 시작한 법인 이사가들이 YWCA 목적과 사명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서 장윤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연탄재' 말씀나눔을 했고, 이명신 소장(비영리경영연구소)이 '비영리 거버넌스와 이사(회)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구정혜 상임이사(한국YWCA연합회)는 '한국YWCA연합회 현황과 과제'를 브리핑으로 전했다. 법인이사들은 소감 나눔 시간을 통해 건강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사명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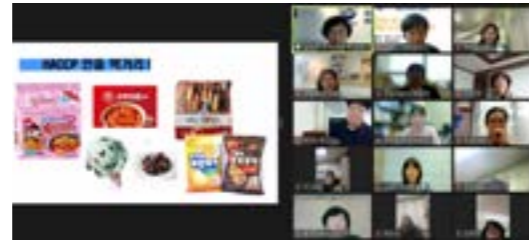
###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간담회



지난 2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방안 발표 이후 계속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에 국민 불안감과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단체는 3월 20일(수) 노무현 시민센터 다들러방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대표, 실무자 약 20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윤철, 오준환 교수가 '의사 수 이슈와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을 끝내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개혁 방향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간담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사태 회복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 2024년 청소년 HACCP 교육 강사교육과 실무자회의

2024년 청소년 HACCP 교육 강사교육이 4월 17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HACCP 교육 강사교육은 중·고등학생들에게 HACCP와 스마트 HACCP의 개념과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습관, 올바른 식품 구매에 대한 태도와 안전한 먹거리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11개 회원YWCA의 16명의 강사가



이날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은 'HACCP 제도의 의미와 이해'와 'HACCP 교육의 실제의 내용'으로 임은경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 이후에는 사업 운영 담당실무자 회의가 진행됐다. 청소년 HACCP 교육은 올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4.10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연합회는 4월 4일(목) 점심시간 명동을 지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4.10 총선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YWCA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연합회 및 서울YWCA 활동가 총 40여 명이 7개 팀으로 나뉘어,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에 투표하라는 패널을 지참하고 관련 도안이 적힌 스티커를 배부했다. 한편, 총 24개 지역의 회원YWCA들은 각 지역 정당 및 후보자 대상의 YWCA 정책 의제 촉구 활동과 유권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 제2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워크숍

YWCA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워크숍이 4월 12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에서 열렸다. 본 워크숍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전국 34개 회원YWCA에서 탈핵기후생명 운동을 맡고 있는 실무활동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 초대된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활동가는 "지역에서 탈핵기후생명 운동 만들기"를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예시들을 소개했다. 이어 회원YWCA 사례 발표로는 서울YWCA



의 김진아 활동가가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라는 비전으로 진행되는 서울YWCA의 운동을 소개하며 로컬 푸드 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붐을 만들고 즐거운 불편운동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전국 YWCA 탈핵기후생명 활동가들은 6월 중순, 1박 2일 현장탐방 워크숍으로 다시 모일 예정이다.

###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연대 활동



2024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연합회는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단체(공동위원장 조은영)로 참여했다. 연합회는 연합회 회관 페이지 명동 외벽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메시지를 게시했고, NCKK 주관 고난의 현장 예배와 416 기억문화제, 생명안전공원에서 진행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여했다. 회원YWCA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하는 전시회 및 문화행사, 기억행사, 4160명의 시민참향 등에 참여해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연합회는 5월 2일(목) 세월호 참사 10주기 옴니버스다큐멘터리 <세가지 안부> 공동체 상영도 진행했다.

### 4.20 삼척 집중행동 "함께 그자! 삼척 석탄!"

지구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20일(토) 오후 1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로 침식돼가는 맹방해변에서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4.20 삼척 집중행동이 펼쳐졌다. 연합회와 강릉, 동해, 원주, 춘천YWCA 활동가들은 이번 집중행동에서 ▲국내 마지막 화력발전소인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가동 중지 ▲21대 국회 내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제정 ▲22대 국회의 탈석탄 로드맵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와 행진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 탈석탄법제정을위한 시민사회연대 등의 기후연대기구와 공공운송노조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 도로에서 열린 본 집회에는 각계의 발언이 이어지고, 선언문이 발표됐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탈핵활동가들은 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삼척시청까지 행진하며 탈석탄 사회를 염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쪽)

### 2024년 씽크머니 협약식




2024년 씽크머니 협약식이 4월 25일(목)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씽크머니는 한국YWCA가 주관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체험형 청소년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 양 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씽크머니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나눴다. 정승애 청소년금융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사업 경과보고 및 2024년 사업소개를 진행하며 2023년까지 씽크머니 사업의 교육수혜자가 총 629,806명을 달성하는 등 씽크머니 프로그램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올바른 금융경제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올해 한국씨티은행은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YWCA에 약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 2024 YWCA 전국회장단연수

2024 YWCA 전국회장단연수가 4월 30일(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44개 회원YWCA와 연합회 회장단 총 79명이



이번 연수에 참석했다. YWCA 전국회장단연수는 연합회와 회원 YWCA 회장단의 역할과 사명, YWCA 중점운동을 이해하고 실천

을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연수에서는 '하나님나라와 YWCA 회장단의 사명'을 주제로 한 말씀 나눔(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비영리 거버넌스와 이사회, 회장단의 역할'(이명진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와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사회 역할'(이재열 서울대 교수) 주제 강의, '5개 회원Y 활동사례 나눔'(고양, 안산, 대구, 대전, 청주Y) 등이 진행됐다. 연수 마지막에는 '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YWCA 회장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YWCA에서 제안하는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 정책을 외치며 하나님나라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YWCA 1922 장학금(농협 301-1922-0000-31)

2024.1.1~2024.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김승아 김미경 김미애 김민주 김병찬 김승아 김은경 김형남 나연정 박동순 박윤애 박희경 배정미 서해원 송선경 신성균 안수진 안정희 윤수정 이은혜 이주영 이해린 이해정 임원선 임진영 정서연 조은영 조은지 최선화 최수산나 홍수진	780,000
단체	진해YWCA	150,000
합계		93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4.2.16~2024.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명희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동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창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서 문상순 문운자 민선영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백혜진 송복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진 이해린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정현조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허만성 허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3,375,000
단체	목포YWCA	100,000
합계		3,475,000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모금 현황(농협 301-0193-6894-41)

2023.12.20~2024.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미경 김민주 김승아 박동순 윤수정 이주영 고마을 이예림 안수진 나연정 이한빛 조은영 이행자	1,510,000
단체	프로젝트 키팅 판매수입금	190,000
합계		1,700,000

팔레스타인 올리브 트리 캠페인 모금 (농협 301-0226-0851-01)

2023.11.28~2024.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나영 강수현 강영은 강이슬 강현희 강형선 강혜원 고미연 고미희 고미희 고은영 고정희 고혜정 구정혜 김가인 김경은 김나리 김대영 김미정 김민지 김선미 김선주 김수연 김순영 김순희 김승진 김애자 김은희 김은경 김재연 김정숙 김정은 김지숙 김진경 김혜경 김혜순 김효정 김희정 류인숙 문재희 박수미 박지호 박윤애 박해숙 박혜정 배경렬 배태철 서해원 손선미 송지연 신승경 신유인 안선영 양금선 양문희 양정윤 오현주 유래연 이미영 이예린 이유나 이주영 이지은 이태경 이한빛 임성숙 임순옥 임진영 장수빈 정은희 정현주 조범산 지창완 진애령 차경애 차민호 최수산나 한진희 현나희 현영실 홍성미 홍승아 홍윤희 홍현정	1,240,000
단체	거제YWCA 광주YWCA 동해YWCA 목포YWCA 순천YWCA 청주YWCA 반포침례교회 안산돌봄과살림(주) 제천YWCA직원상조회 2023 YWCA 성탄예배 헌금	6,199,200
합계		7,439,200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문혜련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사)강릉YWCA는 3월 8일(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강릉 오거리에서 월화거리까지 거리행진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YWCA를 비롯해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레드스타킹, 강릉여성의전화,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시소강릉청소년문화센터 등 6개 여성단체가 함께했다. 캠페인에 나선 활동가들은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당연한 삶을 응원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민들에게 주황 장미(비누꽃)를 나누며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동해YWCA

임향옥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진행



(사)동해YWCA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세계여성기도의날 예배가 열린 동해교회(대한감리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는 100여 명의 지역 성도들이 참석했다. 동해YWCA 자원활동가와 활동가 10명도 예배에 함께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참석자들에게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자'가 적힌 전단지과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꽃을 전달했다.

또한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며,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 시대에서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해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이사·위원 연구모임



(사)서울YWCA는 2024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3월 28일(목)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사, 위원, 실무자 100여 명이 모여 개최예배를 드린 후 'AI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구본권 소장(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AI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민성과 앞으로의 서울Y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I 선용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속초YWCA

주미란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사)속초YWCA는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속초시 로데오거리 황소 동상 앞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포용을 고취하라'에 맞춰 세계 여성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속초YWCA 박연희 회장의 '3.8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선언으로 시작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두 손으로 포용의 상징인 하트를 만들어 촬영한 후 SNS에 공유했다. 게시물에는 해시태그 #InspireInclusion를 달아 게시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InspireInclusion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 업무협약식**

(사)원주YWCA는 3월 15일(금) 원주YWCA 대강당에서 원주중앙침례교회 남성목장, 러빙홈즈와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을 목적으로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은 원주지역 위기 청소년들을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원주중앙침례교회 남성목장은 이불을, 러빙홈즈는 주거환경 개선(공부방 만들어 주기)을 지원키로 했다.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인천 관내 학교별 창체동아리 연계 지원**

(사)인천YWCA는 2024년 Y-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인천 중고등학교 8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의체험 Y-틴 동아리'(이하 창체 동아리)를 1년간 운영한다. 창체동아리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인천YWCA가 파견해 학생들이 환경, 진로 등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YWCA는 지난 2월~3월 참여 학교를 모집한 후 8개 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실버인지강사 자격과정 개강**

(사)춘천YWCA는 3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춘천YWCA에서 실버인지강사 자격과정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실버인지강사 자격과정은 총 6시간으로 진행되며, 하루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실버인지돌이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교육



내용은 노인과 치매의 이해, 치매 인식개선, 예방 및 놀이 교육, 실버인지돌이 실습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과정에는 총 2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춘천YWCA는 3월부터 월 2회 자격과정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권역****(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예배 '잊지 않겠습니다'**

(사)고양YWCA는 3월 30일(토) 주엽커뮤니티센터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일산나들목교회, 동녘교회와 함께 기억예배를 드렸다. 고양YWCA는 예배에서 특송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날 정의구현의 날을 소망했다. 말씀을 전한 유형석 나들목교회 목사는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도 모두의 기억과 연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참여자들을 위로했다. 말씀 후, 예배 참석자 총 80여 명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에너지전환대회**

3월 16일(토)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에너지전환대회에 (사)남양주YWCA 이사 및 실무활동가 8명이 참석했다. 에너지전환대회는 4.10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 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자리였다. 남양주YWCA 활동가들은 주최 측에서 마련한 부스와 공연, 본행사 등에 참여하며 연대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성남YWCA**

장욱현 사무총장

**요실금·생리 '면 패드' 제작**

(사)성남YWCA는 올해 3월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면 패드를 제작한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합성 재료로 제작되는 생리대가 아닌 면 패드를 만들어 배포해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면 패드는 생리대뿐 아니라 요실금 패드, 여행용 속옷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성남YWCA는 현재 이사,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시범적으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손바느질과 미싱 사용이 가능한 자원활동가들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면 패드 제작 상황이 안정되면 회원 소모임을 조직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된 면 패드는 시민들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성남YWCA 환경운동에 쓰인다.

**(사)수원YWCA**

조성주 간사

**제84차 수원수요문화제, 인간의 존엄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사)수원YWCA는 4월 3일(수) 정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84차 수원수요문화제를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수원YWCA 한금



진 회장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수요문화제는 실무활동가의 '바위처럼' 운동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서원숙 회원 오키나와 문화공연, 김순애 이사 자유발언과 한금진 회장 성명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국회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라! ▲한국정부는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안산YWCA**

이체리 간사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 합창 연습**

(사)안산YWCA 회원과 실무자 20여 명은 3월 28일(목),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0인 시민합창단' 노래를 연습했다. 합창곡 제목은 '세월의 울림'으로, '가만히 있오라, 잊지 않을게' 등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깃든 6곡을 메들리로 엮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4160인 시민합창단'이 꾸려졌고, 안산YWCA도 회원들과 함께 시민합창에 참여했다. 합창단은 4월 13일(토) 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리는 10주기 기억문화제와 4월 16일(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10주기 기억식 무대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열 번째 봄을 맞아, 안산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시민합창으로 별이 된 아이들을 만났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신입 위원 교육**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2월 1일(목) 오후 3시 안양YWCA 회관 301호 강의실에서 신입 위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번 교육에는 총 8명의 신입 위원들이 참석해 ▲안양과천군포의왕 YWCA의 구조와 조직도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역사와 운동 ▲위원의 활동과 역할 등 위원으로서의 역량과 YWCA의 정신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신입 위원들은 2024년 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안양과천군포의왕 YWCA의 목적운동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사)의정부YWCA

권지연 간사

### (사)의정부YWCA 이사 위원 인준식 개최



(사)의정부YWCA는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의정부YWCA에서 이사 및 위원 인준식을 개최했다. 인준식은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인준식 1부에서는 신선휘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사, 감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찬양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결단과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인준식은 의정부YWCA의 직전회장장과 이사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2024년 새롭게 취임한 이사, 감사, 위원들의 소개와 다짐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독립 법인인 의정부YWCA에서 더욱 책임 있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인준식을 마무리 했다.

### (사)파주YWCA

김래정 팀장

### '너나들이' 청(소)년 평화교육 및 명절놀이

(사)파주YWCA는 2월 17일(토) 오전 11시 30분에 문산 샘솟는교회 교육실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20명이 함께하는 '너나들이' 평화교육 및 명절놀이(웃놀이 등)를 열었다.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평화롭게 어울리는 과정 중에 평화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들과 실무자들은 정성껏 만들어진 명절음식으로 애찬을 나눠주고, 회원들은 준비해온 갖가지 선물꾸러미를 나누며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송 '축복의 통로'를 부르며 감동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웃놀이를 하면서 교육실이 떠나갈 듯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사)하남YWCA

김상미 팀장

### 한그루 희망나무 심기



(사)하남YWCA 이사과 실무활동가, 자원활동가들은 3월 30일(토) 오전 10시 식목일을 맞아 미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그루 희망나무 심기'에 참여했다. '한그루 희망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연대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총 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알려준 후 주최 측이 미리 파놓은 구멍이에 삽과 물을 가지고 나무를 심게 했다. 또한, 나무를 심은 사람들에게 한해 허브를 재활용 화분에 옮겨 심게 한 후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하남YWCA는 이날 행사에서 친환경 모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정원 하남YWCA 사무총장은 "오늘 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충청권역

###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캠페인 진행



(사)논산YWCA는 3월 20일(수) 오전 8시 30분부터 오거리 소공원에서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사용 절제를 요청하는 활동으로 2020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팻말을 들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도 실무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 8명은 함께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을 벌였다.

###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 창립 78주년 감사예배 및 기부나눔 회원 확대 운동



4월 17일(수) 오전10시, (사)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창립 78

주년 감사예배 및 기부나눔 회원 확대 운동 발대식이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회원 확대 운동을 통해 대전 지역사회 안에서 YWCA 활동을 알리고, 대전YWCA의 좋은 협력자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됐다.

발대식 이전에 창립 78주년 감사예배가 열렸다. 예배 사회는 장현옥 이사가 맡았으며, 대전YWCA 합창단이 특송 '은혜'를 선보였다. 이천진 목사는 '나눔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대전YWCA의 꿈과 기도 제목, 핵심가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뒤이어 홍유미 대전YWCA 회장 인사말로 본식이 시작됐다. 본식에서는 2024년 회원 확대 운동의 계획 및 일정 공유, 회원 확대 운동의 목표와 구성원 소개 등이 이어졌다.

###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세종시 2024 총선 여성연대 토론회



(사)세종YWCA는 3월 28일(목) 오후 2시~2시 30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세종시 2024 총선여성연대 토론회'에 대표단체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시민단체 참여 최대 규모인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4개 정당의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임했다.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이 젠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성인지적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세종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15만 여성 유권자들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검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숙 세종YWCA 회장은 인사말을 전했고,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세계기도일예배 개최

(사)제천YWCA는 3월 8일 오전 11시 고암감리교회에서 제137차 세계기도일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예배는 에베소서 4장 1절~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를 주제로, 팔레스타인 여성 교인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진행됐다. 지역 내 10여 교회, 70여 명의 여성도들이 모여 전쟁 중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위협 속에 있기에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고백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 2024 집중회원증모 나눔문화축제 발대식

(사)천안YWCA는 3월 21일(목) 천안YWCA B동 4층 강당에서 집



중회원증모 나눔문화축제 발대식을 진행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을 진행하는 일 등을 선전하고 동참하는 회원들을 증모하고자 발대식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천안YWCA의 이사, 본부, 부속기관이 6대대로 구성해 달성 목표를 정하고, 대대별로 대대명 및 구호를 선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의지를 고취했다.

###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 22대 총선 청주YWCA 정책의제 청주지역 4개구 후보자에게 제안

(사)청주YWCA는 3월 25일(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청주지역 4개구 후보자들에게 <제22대 총선 청주YWCA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탈핵기후생명명과 성평등 부문과 관련한 의제를 전달했다.

탈핵기후생명명 부문에서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 및 입법 기반 구축 등 3개 영역 6가지 과제를 제안했으며 성평등 부문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노동환경 구조적 차별 개선 등



4개 영역 12개 과제를 제안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청주상당), 더불어 민주당 송재봉 후보(청주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청주서원), 더불어 민주당 이연희 후보(청주흥덕)가 답변을 제출했다. 청주YWCA는 4월 4일(목) 무심천 일대에서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정책제안을 알리며 투표독려 캠페인 등도 벌였다.

###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 충주Y-틴 인준식

(사)충주YWCA는 4월 6일(토) 오후 5시 충주YWCA 지하 더함에



서 '충주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준식에는 청소년 활동가 총 14명이 함께했다. 인준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환경동아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인준을 받았다. 조영숙 충주YWCA 회장과 표효순 사무총장, 소현경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호인 위원, 권순미 위원, 실무활동가(김세희, 한미경, 서은경, 이인선) 등은 충주Y-틴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인준을 축하했다.

충주Y-틴은 2024년 환경기자단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생태계를 조사하고 개별 SNS 계정을 통해 이를 공유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환경실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청소년들의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계획 발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충주Y-틴은 꾸준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약속하고,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 환경보호단체에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경상권역

###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 지역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탈지분유 1,000개 나눔



사단법인 김해YWCA는 지난 3월 (주)경인산단으로부터 탈지분유 1,000개를 기부받아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과 인근의 노인복지시설 5곳에 탈지분유 나눔을 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간식으로 탈지분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나눔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해YWCA는 4~5월에도 탈지분유 나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 영성 훈련 '우분투(Ubuntu) 정신으로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



(사)대구YWCA는 창립 101주년을 맞아 2월 27일(화)~28일(수) 가창 스파밸리 씨엘드포레에서 이사·위원·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우분투(Ubuntu) 정신으로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영성 훈련에서는 부산 샘터감리교회 안중덕 목사의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 기독교민운동단체로서의 대구YWCA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를 뜻한다.

겸손과 사랑, 존중 등의 아프리카 공동체 의식이 깃든 윤리 사상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YWCA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과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며 변화를 향한 2024년의 시작을 말씀의 기초 위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 '한글아 놀자' 북 버스킹



(사)마산YWCA는 3월 23일(토) 오후 2시 마산해양공원에서 유아 문해력 운동 '한글아 놀자' 2024년 개강을 앞두고 원데이 특강 '북 버스킹'을 진행했다. '한글아 놀자'는 언어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문해력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북 버스킹은 마산YWCA 이사이자 한글놀이 강사로 활동 중인 와키의 구연동화로 꾸러졌다. 와키는 호랑이 옷을 입고 호랑이와 관련한 그림책 3권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한글아 놀자'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부모와 아이들이 와키 주변에 모여 앉아 구연동화를 경청했다.

###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13주기 안전한 부산 기원 낭독극 '집으로' 공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11일(월) 오후 4시 효로인디아아트홀 소극장에서 3.11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13주기 안전한 부산 기원 낭독극 '집으로'와 인디밴드 ACT공연을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부산YWCA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법시민운동본부 집행단체로 함께하고 있다.

낭독극 '집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인 마이클 모퍼소가 집필한 '집으로'를 낭독하는 것으로 꾸러졌다. 책 '집으로'는 일각에서 청정에너지라 주장하는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극을 관람한 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 도시 속 생태교육을 위한 도민 환경특강



(사)사천YWCA는 3월 7일 목요일 사천YWCA 2층 강당에서 도시 속 생태교육을 위한 도민 환경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도민 환경특강은 도시 속 생태 환경의 다양한 모습과 관련 이슈를 도민들에게 소개해 도민들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생태 전환 삶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YWCA는 이번 교육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주제와 교육 방법들도 나눴다. 도민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생태교육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랐다.

###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 (사)양산YWCA 부활란 나눔 행사



(사)양산YWCA는 3월 27일(수) 부활절을 맞아 양산YWCA와 함께

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부활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양산YWCA는 매년 협력과 후원으로 YWCA 운동에 동참한 기업들과 기관들을 방문해 부활절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부활란 630개를 전달했다.

###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 제20·21대 회장 이·취임식



(사)울산YWCA는 2월 5일(월) 울산YWCA 2층 강당에서 제20·2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 사회는 한현정 사무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김덕순 직전회장의 YWCA일대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덕순 직전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의 연은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역할로서 YWCA의 발전과 그 미래를 이루어감에 열심히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21대 김태경 회장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역할을 주시며 뜻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의 슬로건처럼 변화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귀한 자리에 선 출해주시어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 "당신은 기후유권자입니까? 나는 기후유권자입니다."



(사)진주YWCA는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3월 21일(목) 진주 중앙시장 앞과 차 없는 거리에서 에너지

전환진주대회를 열었다. 기후위기가 극단적인 재난과 참사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에 전주지역 사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기후유권자로서 바라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떠한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축제, 장례식장 등에서 대화용기 사용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환경교육 일상화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및 생활형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탄석탄 이행을 위한 2030 계획과 지역사회,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 군항제 기간 기후위기 비상대응활동



(사)진해YWCA는 3월 23일(토)부터 4월 1일(월)까지 진행된 진해군항제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이 활동가들과 환경에 대해 소통하면서 기후위기 실천 활동가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해YWCA는 진해YWCA 아나바다 매장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헌 옷을 이용한 공깃돌 만들기, 세탁소 옷걸이 리폼, '오늘부터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하기' 인종상 찍기, 서명하기 등 기후위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 (사)창원YWCA

하민화 간사

#### 4.10 총선 대응 유권자 활동

(사)창원YWCA는 3월 중순~4월 초에 걸쳐 4.10 총선 대응 유권자 활동을 펼쳤다. 창원YWCA는 먼저 5개 지역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을 시민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는 3월 27일(목) 경남사회적혁신타운에서 진행됐으며, 창원YMCA, 진해YWCA, 마산YWCA, 마산YMCA가 함께 준비했다. 창원YWCA는 또한 한국YWCA 운동정책 의제 및 중점운동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창원시 2개 지역구(성산구, 의창구) 출마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3월 14일(목), 3월 21일(목), 4월 5일(금) 점심 시간대에 창원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들이 많이 오가는 문화의 거리에 나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통영YWCA

변은실 부장

#### 평균나이 77.6세, 만학도들의 눈물의 졸업식



(사)통영YWCA는 2월 21일(수) 통영시여성회관 강당에서 '제1회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과정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광자(84), 이두리(81), 황달필(80), 배윤선(79), 황순선(77), 이경아(74), 이강임(73), 백덕연(73) 등 총 8명이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졸업생들의 가족과 교사, 내빈 등이 모여 평균나이 77.6세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졸업생들은 글을 몰라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성인문해교실을 통해 한글, 수학,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통영YWCA는 1990년 창립과 함께 성인문해교실을 개설했고, 4년 전인 2021년에 학력인정문해교실로 정식 인정을 받아 초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들은 2021년 입학했으나 6년 과정을 3년에 모두 마쳐 졸업할 수 있었다.

##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 부활절 맞이 부활란 나눔 행사



(사)포항YWCA는 3월 27일(수) 부활절을 맞아 부활란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포항YWCA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YWCA 이사·위원·직원 등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20여명은 직접 포장한 부활란 85상자를 후원업체 및 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 Y-틴 학교 등 75곳을 방문해 전달했다. 김인에 포항YWCA 회장은 “부활란 나눔을 통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항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라·제주권역

##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미생물 EM방역!



(사)광양YWCA는 사랑나누기 봉사단과 연계해 매일 EM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YWCA 실무활동가들과 15명의 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 26일(화)과 4월 13일(토) 이른 아침 광양 5일시장(광양읍)을 방문해 친환경 미생물 EM을 활용한 생활방역을 실시했다. 3월 26일(화)에는 특별히 생활방역을 마친 후 관내 기업을 방문해 신규 인턴 사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미진 사무총장이 EM특강을 했고, 실무활동가들과 봉사단은 EM활성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 2024년도 신입 이사·공천위원·상임위원 오리엔테이션



(사)광주YWCA는 3월 7일(목) 광주YWCA 4층 강당에서 25명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입 이사 및 공천위원,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신입 자원지도자들이 YWCA 지도자로서 사명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리엔테이션은 ▲YWCA 목적과 정체성(노은미 회장) ▲이사의 역할과 사명·자원지도자의 자세(장혜숙 제21·22대 회장) ▲상임위원의 역할과 사명(박영미 부회장) ▲공천위원의 역할과 사명·회의진행법·서기 기록법 안내(정지운 제30대 회장) ▲YWCA 소개 및 부속시설 안내(윤정순 사무총장)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 (사)군산YWCA

이명미 사무총장

##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전 직원 역량강화교육



(사)군산YWCA 부속시설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1일(목) 오후 1시~5시 센터 전 직원 총 19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영숙 교수(구미대학교)와 함께 ‘나를 찾아가는 소탈한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소통하기 힘들었던 다른 팀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번 역량교육이 실무자들끼리 신뢰감을 쌓게 해 추후 진행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 효과를 내기를 기대했다.

##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 3.8 세계여성의 날 거리 캠페인



(사)남원YWCA는 3월 8일(금) 오전 11시 남원YWCA 부속시설, 남원시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각 기관과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와 목적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총 2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과 실무활동가들이 이번 캠페인에 함께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평등 실천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남원시 동림로에서 시청로 일대를 행진했다. 활동가들은 ‘성별 임금격차 38.1% 연간 여성이 남성보다 덜 받는 임금 3,584만원’ ‘폭력 없는 세상 나부터 시작해요’ ‘여성폭력 아웃’ ‘여성폭력 없는 사회 성평등 시대 첫걸음입니다’ ‘가자, 성평등 민주주의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만났다. 일부 시민들은 “화이팅 하세요!” 하며 캠페인 활동에 지지를 보냈다.

##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



(사)목포YWCA는 3월 28일(화)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세한대학교, 한국장애인개발원,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간담회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목포YWCA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제공기관·이용자·장애아돌봄 측면에서의 사업운영의 고충과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과 장애아가정에게 적합한 돌봄 서비스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일일카페 ‘어서와~일일카페는 처음이지?’ 진행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맑은세상은 2월 24일(토) 오후 1시~5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카페 ‘어서와~일일카페는 처음이지?’를 열었다. ‘어서와~일일카페 처음이지?’는 제주도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맑은세상 청소년들은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전담했다. 직접 만든 음료를 판매하고, 동아리 공연을 올리고, 사진 및 작품 전시 등을 진행했다. 지역 주민들은 청소년들의 노력과 열정에 큰 호응으로 응답했다.

##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 416 세월호 추모음악회 ‘세월의 울림’



4월 13일(토), 조례호수공원에서 416 세월호 추모음악회 ‘세월의 울림’이 개최됐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순천시민행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순천YWCA합창단은 합창으로, 순천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는 416시민합창단으로 함께했다. 추모음악회는 1부 합창단 공연 및 연주, 2부 추모식과 3부 세월의 울림 합창단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YWCA합창단은 1부 공연에서 ‘내 영혼 바람 되어’ 등을 불렀다. 416명이 함께한 시민합창단으로 나선 순천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는 ‘가만히 있으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을 불렀다. 음악회에 함께한

활동가들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노래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2024 여수시민걷기대회



(사)여수YWCA는 3월 21일(목) 미평공원에서 시민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수시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시민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화재로 숨진 미국 여성노동자들을 기리며 거리를 나섰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됐다. 걷기대회는 미평공원 주변 옛 철길 3.8km를 도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8km를 완보한 참가자들에게는 여성의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 화분이 증정됐다.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2024년 (사)익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사)익산YWCA는 3월 26일(화) 회장, 단장, 실무활동가, 감사 단원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연국 익산YWCA 회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워크숍, 감사단 증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익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고발 활동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탄소금식 7주 행동' 진행



(사)전주YWCA는 '2024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탄소금식 7주 행동'을 진행했다. 탄소금식 운동은 사순절 기간(2.14~3.30) 동안 지구에 고통을 주며 우리가 누려온 것을 성찰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내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7주 행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기후선교사 다짐하기, 플라스틱 거절하기, 그린밥상 실천하기, 소비 줄이기, 지구를 생각한 옷 입기,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자연과 시간 보내기, 나눔 & 기부하기를 한주씩 실천했다. 이번 탄소금식 운동에는 전주 지역 교회, 전북기독실업인연합회, 청소년 시설 등 50여 명의 다양한 세대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성평등을 향한 전진"



(사)제주YWCA는 3월 8일(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시청에서 상록회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올해 116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제주YWCA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총 25명이 이번 행진에 참여했다. 행진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동일가치노동' '성평등' 등의 피켓을 들고 제주 시민들과 만났다. 제주 시민들도 이번 가두행진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었다. 일부 시민들은 "성평등 실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좋다"는 의견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국민 건강한대한민국  
튼튼한국민건강보험

#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국민건강보험이 앞장섭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이 꼭 필요합니다



## 불법개설기관 왜 문제인가요?



불법개설기관이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악곡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 공단 특사경 왜 필요한가요?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 불가 등 혐의 입증의 어려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정을 지키겠습니다.